



선배들의 정성 모아 후배들에게 큰 보탬되기를...

본회(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1층 강당에서 2007년 2학기 장학금 및 특기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모교 재학생 1백10명에게 2억7천17만4천8백34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2학기부터 동문 개인 또는 단체가 장학금을 출연해 설립·운영된 특기장학회가 16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재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갔다.

(관련기사 3~4면)



후기 학위수여식

각 단과대학별로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지난 8월 29일 인문대학이 졸업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14면>

관악출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출현으로 서울대는 한바탕 변화를 겪게 됐다.

지난 7월 3일 로스쿨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한국사회의 법조인 양성체제가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우리 서울대가 그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2009년부터는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중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로스쿨이 3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게 된다. 즉 지금의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이 학교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거쳐 변호사, 판사, 검사로 진출하게 된다.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의 법과대학이나 법학부는 사라진다. 이는 서울대에서도 서울법대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대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다. 지금 서울대가 누리고 있는 명문의 브랜드에서 법대가 차지하는 현실적 비중은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 서울법대가 빠진 서울대가 얼마나 허전할까를 생각하니 착잡하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로스쿨의 정원배정 문제다. 만약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한 대학의 로스쿨 정원을 1백50명 이내로 제한한다면, 서울대가 배출할 판사·검사·변호사의 숫자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서울대는 매년 평균 3백50명의 사법고시 합

격자를 내고 있고 이는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정원과 비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로서는 서울법대도 잃고 정원도 잃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손실을 당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런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서울대에 심히 불리한 조치를 강행한다면 여기에는 분명 저의가 있는 것이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

시대변화와 발전에 맞춰 법조인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혹시 여기에도 '서울대 죽이기' 같은 어떤 음모가 도사린 것은 아닐까? 설마 그렇게까지 웅졸한 지도자나 정부가 있을까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피해의식이 떠오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전국의 로스쿨 입학정원을 1천5백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숫자가 OECD국가 중 최하위라는 통계가 보여 주듯이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많은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받아 온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만큼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차제에 로스쿨 입학정원을 대폭, 적어도 3천명 이상으로 늘려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丘月煥는설위원)

로스쿨과 법률서비스

알림

10월 21일 일요일에 만나요 흠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제29회 흠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오는 10월 21일 일요일에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해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동기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10월 21일(일요일) 오전 9시
-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 △참가대상 : 동문 및 동문 가족 △참가비용 : 없음
- △제공물품 :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동문 음악가 CD) 등
- △경품 : 다량의 선물 추첨 (林光洙회장 승용차 제공)
- △문의전화 : 02)702-223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서울대학교총장 李 長 茂

느리나무광장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 신문도 소비자(독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공급자(언론인)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한지 20년 하고도 몇 년이 더 흐르면서 부지불식간에 머릿속에 자리잡은 특이한 현상들이 있다.

‘좋은 뉴스는 나쁜 뉴스,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good news is bad news, bad news is good news)도 그 중 하나다.

편집과정에서 키울 수 있는 기사의 대부분은 당사자 입장에서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피해치거나 비판하는 ‘나쁜 뉴스’들이다. 취재 대상의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 언론인 입장에서는 좋은 기사거리인 셈이다. 긍정적 정보, 밝은 기사 등 좋은 뉴스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덜 환영받는 것이 언론현실이다. 편집국내 직급이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반성이 강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 강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석간신문 종사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침형 인간을 넘

어 새벽형 인간에 가깝다. 매일 출근과 동시에 1면 톱 기사 거리를 찾는다. 폭로, 비판 등 ‘화끈한 기사’들이 많으면 그 날 하루는 신문을 제대로 만든 것 같은 뿌듯함을 느낀다.

작더라도 매일 1건씩 감동적 기사나 생활정보 기사들을 1면에 배치하려 하지만 작심삼일도 어렵다. 휴먼스토리를 1면에 크게 보도할 수 있는 날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지만 1년에도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기자 생활을 해오는 동안 개인적으로도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비판하거나 들춰내는 기사를 훨씬 많이 써 왔다.

좋은 뉴스, 나쁜 뉴스

李 容 式
문화일보 편집국장
본보 논설위원



이 때문에 가장 가까웠던 취재원들이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고, 또 그들과의 소송에 휘말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처음 기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가까운 친척 한 분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너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남의 뒤나 캐고 다녀서야 되겠느냐, 차라리 내 회사에 와서 일해라.”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조차 기자와 취재원 관계가 되면 ‘不可近 不可遠’이 된다. 나쁜 기사를 좋은 기사라고 믿고 추적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은 않을 것이다.

인타깝게도 최근에는 언론인들을 특권집단, 죽치고 노는 인간들로 공격하고 ‘대못질’ 운운하는 사태까지 왔다. 이러한 정부 일각의 언론공격에 일부 공무원들이 맞장구를 치는 것도 ‘나쁜 뉴스’ 피해망상증 때문이 아닌가 싶다.

뉴미디어를 넘어 개인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언론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타직종으로의 이직도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이런 많은 도전적 상황 속에서도 기자들은 나쁜 뉴스에 대한 추적과 보도를 중단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어두운 곳을 피해치려는 사람들 덕분에 사회가 조금이라도 빨리 진보하고 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관악시단

연 (鵲)

愼 協(국문61-65)충남대 명예교수·시인

소년은 하늘을 향해
연줄을 풀고 있었다.

바람을 조심스레 타면서
연은 차츰 높이 올라
세상을 너그럽게 내려다보았다.

연은 채증을 가늠하면서
목숨을 한 가닥 실 끝에 매달았다.

순간, 연은 한 바퀴 빙 돌다가
현기를 쫓듯
처절하게 몸을 흔들었다.

실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주는 민낯을 흔들여 보이고,

실이 끊어지면서
연은
뿌리 깊은 소리 쪽으로 사라졌다.

동문칼럼

지금부터 만 20년 전, 1987년은 한국사회가 획기적인 역사의 분수령을 넘은 해다. 그 변화의 핵심이 민주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커다란 변혁의 흐름이 있었음을 보아야 비로소 1987년의 진정한 의미가 제대로 살아난다.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그에 수반한 사회적 자유화(societal liberalization)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접선거와 지방자치의 실현, 그리고 그 여파로 사회 각 부문의 기관단체 대표자의 직접 선출을 두고 민주화라 여기게 됐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의 숙제를 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의 자유화에도 부작용이 따랐다. 1987년 한 해만 노사분규 건수가 3천7백을 넘었다는데, 평소의 열 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에는 시민운동단체의 지나친 정치화가 시뵐거리가 됐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아냥도 있다. 자유에는 반드시 자율도 따라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 데서 연유한 문제점들이다.



金 璟 東
(사회55-59)
모교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시민사회는 본래 권리 및 이익의 주창(advocacy) 기능과 책임 및 의무를 중시하는 자발적 봉사(volunteering) 기능, 이 두 기둥이 균형 있게 떠받들고 있어야 건전하다. 지금까지는 민주화의 이름으로 권익추구에 시민운동이 치중했으므로 이제는 시민사회의 균형을 되찾아 자발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생겼다. 사회의 약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베푸는 봉사활동과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한 과업에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닌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이 적극

자발적 사회의 이상

지 못한 채 이념도 정책도 없는 패거리 중심의 철재정당, 취약한 의회, 특권의식, 독선, 이권 독점, 부정비리의 잔재로 허덕이는 뒷골목 이전투구다. 민주주의는 선거만능이 아니라 민주적 의식과 행위가 따라야 하며 선거문화 자체도 선진화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사회적 자유화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언론자유는 물론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특히 눈에 띄는 변화다. 자유화 이후 겨우 10여 년 뒤인 2천년에 이미 비정부기구(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수가 2만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고 일부 시민운동 단체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것도

나서야 하는 것이다.

자발적 사회(voluntary society)의 이상은 공공선 혹은 공익적 대의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자발적인 봉사정신의 발로에 있다. 정치도 근본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의 한 유형일 뿐인데 거기서 이권을 쟁기고 특권을 누리려다 보니 정치의 퇴행을 초래한 것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정치의 계절을 맞이해 정치인은 물론 온 국민이 이러한 자발적 사회의 이상 실현에 총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특히 서울대 동문은 사회의 엘리트답게 noblesse oblige의 숭선수범에 나서야겠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편집주간 許 瑄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南仲九,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觀,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철저한 준비·용기있는 결단력으로 큰 꿈 이루길”

본회·단과대동창회서 올해 장학금 9억4천여만원 수여

본회는 지난 8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특지장학금 출연자, 학부모 및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2007년 1·2학기 장학금으로 본회가 2백 11명에게 5억1천9백64만5천8백34원을 수여했으며, 각 단과대(원)동창회가 2백 18명에게 4억2천8백26만5천5백원을 전달함으로써 올해 모교 재학생 총 4백29명에게 9억4천7백91만1천3백34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특지·기금 장학금 수여 현황 4면 참조>

본회 許瑋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특지 및 기금장학금을 출연해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식사에서 “모교 총장님과 교직원 모두가 발전기금 증대와 법인화 대책 논의, 인문학 중흥 그리고 로스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동안 모교를 훌륭히 이끌어주신 데 대해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학생들에게 “아침을 성공의 원동력으로 강조한 나폴레옹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불행은 우리가 젊은 시절 시간을 허비한 데 대한 문책’이라며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예를 들면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꿈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결단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을 대신해 權斗煥대학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40년 전 대학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등록금이 1만원 정도였는데, 의료보험료와 대학신문 구독료도 포함돼 있었다”며 “등록금을 선뜻 내줄 수 있는 학부모가 많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무과세 영수증을 떼어와서 장학금 신청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형편이 좋아져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 이렇게 기금을 출연해준 많은 선배와 후배 그리고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 수여식을 갖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다”며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과 든든한 선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申圭浩(영어교육3년)군은 장학생을 대표해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과 자리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누가 되지 않는 구성원으로서 선배와 한 시대를 살아가며 미래를 책임 있게 채워 가는 후배가 되겠다”고 답사했다.



林光洙회장이 장학금을 출연한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모교 權斗煥대학원장이 장학금을 전달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 장학금 수여



모교 李政宰학생처장 장학금 전달



洪性大특지장학금 수여



吳東英·金讚淑특지장학금 수여



鄭忠始특지장학금 수여



金秉順·李志鎬특지장학금 수여



보건대학원 특지장학금 수여

이어 崔然成(성악01-05 모교 음대 조교)·金감찬(성악02-06 모교 대학원 재학)동문과 金鉉皓(성악02입)군이 아카펠라로 The New Christy Minstrels의 클래식 곡 'Today'를 축하곡으로 불렀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李海遠·金讚淑·鄭八道·李鍾基·鄭忠始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申明珪·金秉順이사, 朴英俊감사, 許瑋사무총장을 비롯

해 모교 權斗煥대학원장, 李政宰학생처장, 미대동창회 金鳳九회장, 보건대학원동창회 姜寅求회장, 수학과동창회 金永煥회장, 양천장학회 金潤澤이사장, 일성 李瑄恒고문, 애플테크놀로지코리아 金鎭雄고문, 가천의과학대 尹成泰대학원장, 도화종합미술공사 文喜億부회장,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회 秋景玉여사 등이 참석했다. <表>

각 단과대동창회 장학금

1백5명에 2억1천40만5천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李倫京)=6명:4백만원 ▲법대동창회(회장 李載厚)=34명:7천6백12만8천원 ▲사대동창회(회장 林香淳)=4명:9백6만4천원 ▲상대동창회(회장 洪龍濤)=35명:7천8백2만1천원 ▲수의대동창회(회장 鄭英彩)=4명:9백69만2천원 ▲약대동창회(회장 李金器)=5명:5백만원 ▲치대동창회(회장 洪禮杓)=4명:1천2백만원 ▲대학원동창회(회장 河斗鳳)=4명:1천2백만원 ▲한대원동창회(회장 崔秉瑄)=9명:4백50만원

관악회 일반장학생 명단

(괄호안 전공·학년)

▲인문대 金眞英(종교학 석사과정)·吳慧媛(불문학 석사과정)·韓珍今(국사학 석사과정)·申東旭(국사학4)·成管淨(노문학2) ▲사회대 權泰延(사회복지학 박사과정)·盧載光(경제학 박사과정)·康芝英(정치학 석사과정)·金潤鍾(심리학4)·李起淵(지리학3)·鄭恩英(사회학3)·宋太旭(외교학2) ▲자연대 張潤秀(수리과학4)·沈美敬(통계학3) ▲간호대 金씨래(간호학3) ▲경영대 裴景勳(경영학 석사과정)·金京珍(경영학1) ▲공대 金泰榮(조선해양공학4)·金鍾赫(컴퓨터공학4)·任炫柱(산업공학4)·柳濟雄(전기공학3)·朴志訓(지구환경시스템공학3)·李奇旭(기계항공공학2) ▲농생대 邊相均(식품생명공학 석사과정)·裴珉規(농경제사회학4)·朴芝恩(식물생산과학3) ▲미대 權素珍(조소3) ▲법대 權眞我(법학 박사과정)·李剛勳(법학 석사과정)·邊幸均(법학3) ▲사대 李正贊(국어교육 박사과정)·金成俊(영어교육 석사과정)·金熙珍(특수교육 석사과정)·安賢煥(수학교육4)·金順鐸(체육교육3)·申圭浩(영어교육3) ▲생활대 李은혜(소비자이동학3) ▲수의대 金祉圻(수의학3) ▲약대 崔源(약학2) ▲음대 金多憐(기악3) ▲의대 李俊求(의학4)·金牟憐(의학3) ▲치대 朴晝娟(치의학4) ▲행대원 李熙宰(행정학 박사과정) ▲한대원 李榮(조경학 박사과정)

2007년 2학기 특지·기금 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순)

장 학 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洪性大특지	洪性大(수학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관악회 상임이사	襄하은(영문학2년)	3,000,000
		宋소라(국어교육1년)	3,000,000
		朴寶羅(사회과학1년)	3,000,000
		朴潤雅(법학1년)	3,000,000
亞南특지	金柱津(법학54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회장	李周姬(경제학2년)	1,906,000
		金世英(사회과학1년)	2,615,000
		金昭晶(사회과학1년)	2,615,000
		高秀然(의류·식품1년)	3,137,000
李吉女특지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	池淑榮(미학3년)	1,854,000
		李裕暎(인문계열1년)	2,056,000
吳東英· 金讚淑특지	吳東英(조선항공54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金讚淑(치의학5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朴玟朱(치의학4년)	3,000,000
		沈載賢(치의대학원3년)	3,000,000
		金來潤(치의대학원2년)	3,000,000
		朴炫珠(치의대학원1년)	3,000,000
張世一특지	張世一(전기공학59-63) (주)일성 회장	鄭潤珠(바이�공학2년)	2,749,000
朴柱鐸특지	朴柱鐸(무역학69-74) 중국 수산기계 총재	崔允楨(국제대학원2년)	2,370,000
楊銀淑특지	故 楊銀淑(간호학51-54) 前대한간협 재정위원장	李潤慧(간호학2년)	2,000,000
鄭八道· 李慈倬특지	鄭八道(AIP 1기) 코리아랜드컴파니 회장 부인 李慈倬여사	宋仁虎(의학4년)	4,507,000
		韓奎水(전기공학3년)	2,710,000
李金玉· 黃海根특지	黃海根(토목공학54-60) 동일기술공사 회장 부인 故 李金玉여사	權柳祐(경영학2년)	1,906,000
		崔芝榮(법학3년)	2,213,000
李鍾基특지	李鍾基(경영학69-73) 상영무역 사장	朴文藝(경영학4년)	2,213,000
		朴商勳(법학2년)	2,265,000
鄭哲圭특지	鄭哲圭(화학공학48-52) 신앙문화재단 이사장	鄭銀朱(전기컴퓨터 박사)	2,000,000
		朴成益(기계항공 석사)	2,000,000
		金旻珍(건축학 석사)	2,000,000
化學科특지	화학과동창회	金東珍(화학4년)	2,685,000
		申빛나리(법학4년)	1,000,000
		李鍾赫(법학3년)	1,000,000
金秉順· 李志鎬특지	金秉順(AMP 4기) 한국구아노 이사 장남 李志鎬(의학77-83) 모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	金好燾(의학3년)	2,000,000
		玄貞峴(의학3년)	1,000,000
		李龍美(지구환경4년)	1,300,000
孫致武특지	故 孫致武(대학원70졸) 前모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徐切娥(지구환경3년)	1,300,000
		朴庸圭(지리교육4년)	1,500,000
林光특지	林光洙(기계공학48-52) 임광토건 회장	金賢景(언론정보3년)	1,500,000
安聖哲· 孫潤淑특지	安聖哲(행정학58-63) 유니온테크 회장 부인 孫潤淑여사	李振赫(법학2년)	2,265,000
鄭忠始특지	鄭忠始(화학공학72-76) 오미아 이스터아시아 회장	朴相義(화학생물4년)	1,159,000
		李讚揚(화학생물3년)	1,159,000
郭永勳특지	郭永勳(토목공학56-60) 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	金하나(건축학 박사)	3,354,000
李海遠특지	李海遠(행정학51-55) 한국우드워드 회장	金弘道(법학2년)	1,800,000
牧村5父子특지	故 金道昶(법학43-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襄보람(경영학3년)	2,213,000
		趙秀韓(법학3년)	1,854,000
		金基浩(법학2년)	1,906,000
張學享특지	張學享(토목공학46-50) 삼양장수공업 회장	徐斗源(지구환경2년)	2,774,000
李元珪기금	李元珪(농생물학58-63) 한산이씨 도봉구 회수회장	林惠珍(법학4년)	2,213,000
郭東憲특지	郭東憲(법학61-65) 변호사	金泰猷(산림과학4년)	2,318,000
李相範· 高姪錫특지	李相範(행정학53-57) 변호사 부인 高姪錫여사	金振輝(경제학4년)	2,213,000
保健大學院특지	보건대학원동창회	尹暖喜(보건학 석사)	3,329,000
數學科특지	수학과동창회	李辰旭(수리과학4년)	1,000,000
		趙慧眞(수리과학4년)	1,000,000
		黃龍雲(수리과학4년)	1,000,000
金潤澤특지	金潤澤(경대원68-70) 양천장학회 이사장	朴明珠(역사교육3년)	1,500,000
		李承潤(사회과학1년)	1,028,000
姜信浩특지	姜信浩(의학46-52) 동아제약 회장	辛周炫(기계항공3년)	2,710,000
吳應鉉· 秋景玉특지	故 吳應鉉(섬유공학67-71) 前반월나염시범단지 대표 부인 秋景玉여사	南海林(재료공학3년)	2,710,000
그린 기금	농대 그린장학회	車相永(식물생산4년)	1,000,000
李承俊· 李淸元특지	李承俊(섬유공학56-60) 풍국산업 회장 남동생 李淸元(자원공학67졸)	曹圭植(화학생물2년)	1,988,834
金相廈특지	金相廈(정치학45-49) 삼양사 회장	權珠榮(물리교육3년)	2,685,000
		安姬娟(간호학3년)	2,685,000
		金鐘大(사회과학1년)	2,415,000
趙炳祐특지	趙炳祐(섬유공학59-64) 유흥실업 회장	金旻奎(수의학1년)	2,000,000
일산회특지	농대 일산회	趙展友(언어학1년)	2,415,000
贈泉특지	李在源(상학55-59) 한국큐빅 이사	羅별님(기악4년)	2,000,000
嚴秉潤특지	嚴秉潤(외교학60-64) 세림테크 회장	金망울(외교학4년)	2,213,000
李金器특지	李金器(약학55-59) 일동제약 회장	李在泳(약학2년)	2,978,000

‘재단법인 서울대 발전기금’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서울대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은 지난 8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에서 2007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기금 출연자와 장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만남의 자리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백20여 개의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금은 매년 5백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2학기에는 2백31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전달식은 발전기금에 장학금을 출연해주신 동문, 학부모 및 일반인과 후원받은 학생들이 직접 만나 친목을 나누고,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보다 감사한 마음과 책임감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수혜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후원자와 수혜자 사이에 든든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연자 대표로 故 김인하(전문학 전공)군의 부친 金永秀동문은 격려사에서 “모교 재학 중 아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면서 한동안 절망 속에 살았으나 아들의 못 다한 꿈을 후배들이 대신 펼칠 수 있도록 모교에 기금을 출연하고 나니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동문 골프대회 집행위
모교 발전기금 모금 논의

본회는 지난 8월 6일 서울 한국 언론재단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제3회 동문 골프대회 첫 번째 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徐廷和·孔大植·辛鉉雄부회장, 朴英俊감사, 李炯均·金仁圭논설위원, 許瑄사무총장, 간호대동창회 李倫京회장, 음대동창회 徐桂淑회장, 법대동창회 李載厚회장, AMPFRI동창회 尹煥植회장, 모교 발전기금 朱鍾南상임이사, 삼안 金秉麟고문, 고려대 朴榮敏교수, 동양물산 尹汝斗부회장, 대한약사회 元喜睦회장 등이 참석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회는 동문간 친목 뿐 아니라 모교 발전기금 모금 증대를 위해 열게 됐다”며 “기금을 출연하는 동문에게 모교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니 모교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기금이 누구한테 전달되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얘기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미래의 역군이 될 후배들을 직접 만나니 감개무량하다”고 덧붙였다. 장학증서 전달식을 마친 후 이지혜(인류학04입)양과 인병철(기계항공공학부04입)군이 장학생을 대표해 감사의 뜻이 담긴 답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李長茂총장, 金梅子·朴相大·白南園·李明學·李順媛명예교수, 李政幸학생처장, 朱鍾南 발전기금 상임이사, 사회대 林玄鎭학장, 약대 徐永鉅학장, 본회 許瑄사무총장, 특수건설 金重憲부사장, 도서출판 다다 李昌得대표, 상진개발 鄭祥根대표, 도암기획 崔眞哉대표, 김인하장학회 金永秀대표, 이경식장학회 李庚植대표, 이세창장학회 李世昌대표, 최영자장학회 崔英子대표, 설령탕 전문점 ‘이남장’ 申英柱대표, 삼송장학회 심정보대표, 한성서적 이용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表)

비해 질적·양적으로 뒤지지 않은 수준 높은 대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본보 논설위원 위촉



본회는 지난 8월 14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동창회보 편집회의 겸 동창회 운영위원회에서 동아일보 崔英勳(법학78-83)사회부장(사진 上)과 許文明(가정관리86-90)논설위원을 본보 논설위원으로 위촉했다. 崔英勳동문은 동아일보 사회부·정치부 차장, 국제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許文明동문은 동아일보 사회부·문화부 기자, 교육생활부 차장 등을 지냈다. (南)

2008년 포켓용 DIARY·탁상용 달력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와 ‘탁상용 캘린더’를 준비했습니다.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께 10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8년 戊子年의 설계와 구상을 새롭게 변신한 동창회 DIARY에 기재해 보란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사무처

해외 명문 로스쿨과 경쟁 위한 해법 필요

지난 8월 27일 열린 긴급 좌담 회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 상임부회장, 李相赫·洪性大부회장, 金哲洙·金仁圭논설위원, 許璫사무총장, 법대동창회 李載厚회장, 모교 법대 成樂寅전임 학장, 胡文赫학장, 金建植로스쿨 추진위원장, 李元雨부학장이 참석했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로스쿨 도입문제가 제기되면서 모교 법대의 위상이 크게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효과적 대처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모교 법대의 위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胡文赫학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든 시행령(안)에 따르면 입학정원이 1백50명으로 줄어 들고 모교생들은 50% 이상 넘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법학 교육의 다양성, 전문성, 국제화를 추구하는데 장애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쿼터제(학생선발 제한) 도입도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본보 金仁圭논설위원은 “언론에 비쳐진 모교 법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이런 시각을 지우기 위해 서라도 해외사례와 그동안 모교 법대에서 배출한 법조인 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金建植로스쿨 추진위원장은 “로스쿨법이 통과되고 나서 급히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예산·시설 문제에 있어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는 부분은 해외 명문 로스쿨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 법대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공공부문, 즉 행정부로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번



지난 7월 27일 공포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따르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1백50명 이하로 예정돼 있다.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한 이러한 확립적 제한은 ‘다원화·국제화된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기회에 그쪽으로 진출할 법률가를 제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조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9월말쯤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며, 로스쿨 개원은 오

는 10월까지 인가신청을 받아 2009년 3월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南)

모교 로스쿨 최저 3백명은 돼야

입학정원의 적정규모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기업간 무한경쟁 속에서 결국 국제경쟁력 있는 법률가만이 자국과 자국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주요 로스쿨, 나아가 미국의 최고 로스쿨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로스쿨이 필요하다.

학문으로서의 법학 연구 및 교수의 양성도 중요하다.

로스쿨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 연구는 첫째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법적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 학생들에게 법적 사고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수진을 양성해 로스쿨을 통한 법률교육을 진일보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최고 로스쿨들이 그러하듯 우리나라의 선도적 로스쿨 역시 아주 우수한 졸업생 중 상당수는 일정한 실무경험이나 학술연구 과정을 거쳐 국내의 여러 로스쿨의 교수가 되도록 유도돼야 한다.

로스쿨 지원자의 대부분은 금전적 수익성을 중시해 공공부문

(public sector)보다는 로펌 등에서 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도적인 로스쿨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공공부문에 보다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선도적 로스쿨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법학교육기관에서 단기간 내에 선도적 로스쿨로 도약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와 같은 인위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로스쿨 제도 자체의 성공을 위해 이러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몇몇 교육기관에 선도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 3백명 규모의 입학정원이 필요하다.

로스쿨 체제의 핵심적 목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법률가 양성을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도표 자료에서 보듯이 세계 유수 로스쿨은 대부분 적어도 3백명 이상의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있

며, 특히 우리와 직접적 경쟁대상인 일본은 전통적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3백명 이상의 로스쿨을 여러 개 설립·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이 있는 선도적 로스쿨에 대해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 경쟁력뿐만 아니라 다양성 면에서도 3백명 규모의 정원이 필요하다.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로스쿨이 신분제습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과 교육내용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돼야 한다.

입학정원이 소규모인 경우 대부분의 교수진은 현재의 사법시험과목 또는 필수과목 위주로 짜여질 수밖에 없으며, 교과목과 교육내용 역시 다양해지기 어렵다.

그밖에 공익성 면에서도 적정 규모의 인원은 중요하다.

모든 로스쿨에서 기본적인 로스쿨의 임무나 학생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국의 로스쿨 예에서 나타나듯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공익을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지향

외국 로스쿨의 교수 및 학생 수

- | | | |
|--|--|-----------------|
| 1. 미국 | | |
| ◦Harvard Law School | | |
| - 학생 : 1학년 5백40명 | | - 교수 : 전임 80명 |
| ◦Yale Law School | | |
| - 학생 : 1학년 2백명 | | - 교수 : 전임 48명 |
| ◦Columbia Law School | | |
| - 학생 : 1학년 3백82명 | | - 교수 : 전임 78명 |
| ◦UC Berkeley School of Law | | |
| - 학생 : 1학년 8백50명 | | - 교수 : 전임 67명 |
|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 |
| - 학생 : 1학년 1천3백45명 | | - 교수 : 전임 1백5명 |
| ◦Georgetown University Law School | | |
| - 학생 : 1학년 4백50명 (full time)+1백27명 (part time) | | - 교수 : 전임 1백16명 |
| 2. 일본 | | |
| ◦Tokyo Law School | | |
| - 학생 : 3백명 | | - 교수 : 전임 89명 |
| ◦Keio Law School | | |
| - 학생 : 3백74명 | | - 교수 : 전임 58명 |
| ◦Chuo Law School | | |
| - 학생 : 2백90명 | | - 교수 : 전임 60명 |

하는 로스쿨로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점진적 증원 방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1백50명으로 시작한 후에 국제경쟁력 등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증대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의 교육목표나 방향은 초기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로스쿨 설립초기에 정착시키지 않으면 사후 교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입학정원 상한선 증대 · 학생선발 제한 폐지

☑ 로스쿨 도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공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선도적 로스쿨의 입학정원의 상한선을 3백명 수준으로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로스쿨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지난 8월 27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외 신기자클럽에서 본회 임원과 모교 법대 학장·교수를 초청해 로스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모교 교수진 연구업적 세계적 수준

서울대 로스쿨의 역량

현재 로스쿨을 추진하는 각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형식적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요건충족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로스쿨이 선도적 로스쿨이 돼야 하는가는 그 학교의 역사, 경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심사가 돼야 한다.

과거의 성과나 현재의 교육수준으로 판단할 때, 현재 당장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은 서울대학교 로스쿨이다.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이전부터 국제화 시대의 세계적인 로스쿨이 되기 위해 교수진, 교과과정, 실질적인 교육내용 등을 혁신해왔고 앞으로 더 그러할 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진은 국내 최고수준은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도 인정받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선도적 로스쿨의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전혀 손색이 없다.

현재의 교수진은 국내 법학계에서 최고의 이론수준, 학문적 역량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미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진의 연구업적은 그 질적인 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로스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해외에서 출간 및 인용되고 있으며, 해외의 우수 로스쿨에 초빙돼

방문교수로서 다양한 법학과목의 강의를 직접 담당하거나 국제기구의 중요 지위를 맡는 등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대학교 법학’誌는 국내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저널로, 피인용지수 등 영향력에서 최고 수준이다.

현재의 교수진은 학생들이 법률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망라하는 여러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로 이뤄져 있다.

국제화와 관련, 국내 유일의 한국법 소개 영문저널인 ‘Journal of Korean Law’를 매년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미국 버클리 로스쿨과 ‘기술과법센터’ 및 ‘공익산업법센터’는 매년 공동으로 국제적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동아시아 지역 최고 명문 법대로서 중국의 베이징대 법대, 일본의 도쿄대 법대와 삼각교류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미주권과 유럽권의 세계 우수 법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며 확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다른 어느 대학과 비교하더라도 수많은 행정관료와 공공부문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을 배출해 왔으며, ‘금융법센터’ ‘기술과법센터’ ‘공익산업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등 연구센터를 통해 공공정책의 발전 그리고 공익·인권 등 공공성과 관련된

사법시험 합격자 추이

합격자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2006년 (994명)	335	143	121	72	59
2005년 (1,001명)	328	177	120	73	63
2004년 (1,009명)	349	166	105	58	58
2003년 (905명)	340	170	84	52	46
2002년 (998명)	333	176	118	34	56
2001년 (991명)	398	156	80	45	67
2000년 (801명)	336	153	84	35	39
1999년 (709명)	276	149	80	26	43
1998년 (700명)	297	147	56	46	39
1997년 (604명)	329	79	44	38	35
1996년 (502명)	250	69	47	39	28

법적·정책적 논의를 주도하며 그간 활발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수많은 연구 성과물을 산출해왔다.

먼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과거의 법조인 및 법과대학 교수의 배출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실적은 단지 우수한 고교졸업생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기 때문만은 아니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육철학과 방식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과거의 성과와 현재의 역량을 볼 때, 서울대 로스쿨은 위와 같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로스쿨, 학문의 전수와 공공분야에의 진출을 장려하는 로스쿨로서의 임무를 어느 대학보다 더욱 잘 수행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후에도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 지원 없이 양질 교육 불가능

서울대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로스쿨의 도입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인가된 로스쿨 사이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로스쿨은 그 전체 대학의 명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됨은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거에도 연세대 상대, 고려대 법대 등과 같이 각 대학이 간판으로 내세우는 학과들이 존재했으며, 특정 학과의 성과가 전체 대학의 명성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서울대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로스쿨이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큰 손실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립대가 모두 로스쿨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인식이 전체 대학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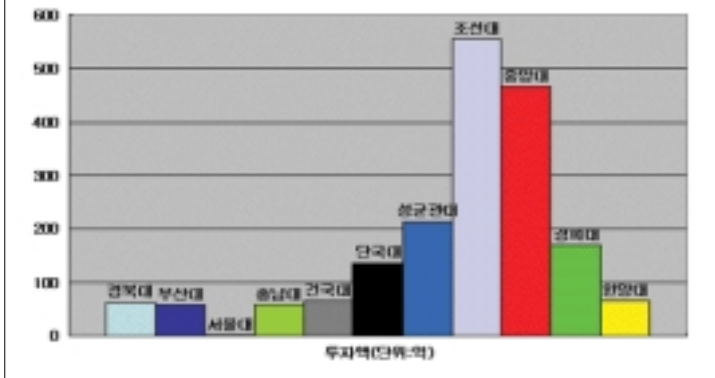
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법대는 과거 단순히 우수한 인력이 지원한 것에 편승해 많은 법조인을 배출했으나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통로가 봉쇄돼 결국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다른 우수 대학의 로스쿨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로스쿨법에 따르면 각 로스쿨은 모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수한 서울대 학부출신을 서울대 로스쿨이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상당수는 다른 경쟁 로스쿨로 진학할 것이 예상된다.

양질의 교육의 핵심은 결국 우수한 교원의 확보 및 도서관을 비롯한 연구지원 시스템의 확립인바, 현재 다른 사립대의 경우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경쟁 로스쿨이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따라올 경우, 로스쿨 도입 이후 서울대 로스쿨이 과거의 우월적 지위를 상실한 채 단순히 그만그만한 로스쿨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른 대학교의 재정지원 현황 (2007년 4월 기준)



로스쿨 설립준비 위한 예산소요

■시설관련 총소요자금 : 1백41억원

○기확보 예산 : 46억원
○추가적으로 확보돼야 할 금액 : 95억원

■교원관련 총 소요자금 : 1백32억원

○추가소요 교원 수 : 18명 (61명 목표)
○정식교수 4명 : 법대 자체 결원 1명+타 단과대 연석 임시배정 3명
○기금교수 14명 : 본부 발전기금에서 임시로 차입해 기금조성
○인가신청서 제출 시까지 우선 15명 채용(정식교수 4명+기금교

수 11명)

○11명의 총원에 따른 총소요자금 : 1백32억원 (12억원/인)

○기금교수 3인 추가 채용시 총소요자금 : 1백68억원

■교원관련 대책

○현재 본부 발전기금에서 차입 후 이자(교수 인건비 상당액) 지급

○기금확보를 통한 변제
○교육부로부터 교수 TO 받아 기금교수를 정식교수로 전환

내 용		금액	소계
도서관 증축	건축	95억	1백15억
	내부설비	20억	
모의법정		10억	10억
강의실 및 열람실	중대형 강의실	8억	16억
	멀티미디어 강의실	8억	
	열람실	5억	
합 계			1백41억

상과대학동창회

장학금·학술비 1억여원 전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燦)는 지난 8월 31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아하우스에서 2007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영학과 20명, 경제학부 20명의 재학생에게 총 8천8백98만3천원(연강재단 장학금 포함)을 전달했다. 또 학술연구비로 경영대학 대학원과 경제학부 대학원에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억8백98만2천원을 지원했다.

洪龍燦회장은 “현 인류는 IT·BT산업의 발전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됐다”며 “경제학도들은 모의투자게임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기술을 연마해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창시절 4년동안 장학금을 받았다는 모교 鄭雲燦 전임 총장은 “장학금을 지원한 선배들에게 매 학기 편지를 써서 고마움을 꼭 표시



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창회 장학금은 기금과 매년 특지자들의 출연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물류협회 安台鎬(경제45-53)명예회장, 모교 沈炳求(경제49-53)명예교

수, 金正銀(경제52-56)前오라관 광 고문, 李鍾衍(경제52-56)前 조흥은행장, 모교 李榮薰(경제70-78)경제학부장·郭守根(경영73-77)경영대학장 등 동문 20여 명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축하했다.

나섰다.

동기회는 올해 초 장학회(회장 權容錫)를 설립하고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 1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

權容錫장학회장은 “동기인 모교 법대 李元雨교수로부터 제적될 위기에 처한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가운데 1~2명은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그런 후배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 동기들과 뜻을 모아 장학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학회는 매년 1명씩 인원을 늘려 4년 뒤에는 각 학년당 1명의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동기회는 지난해 11월 졸업 2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에서 2억1천여 만원을 모금해 그 중 1억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으며, 유명을 달리한 동기들의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AMPFRI동창회

해외 연수 다녀와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尹煥植)는 지난 8월 23~27일 중국 상해와 계림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에는 20여 동문이 참여해 중국의 정통황실요리, 용봉탕 등의 음식을 체험하며 중국 요리에 대한 안목을 넓혔다. 그밖에 상해 임시정부청사, 계림 이강 유람, 요족 마을 방문, 요산 등을 관광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8월 17일 서울 역삼동 마끼노차아에서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하반기 사업을 논의하는 회장단 및 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尹煥植회장은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해 역동적인 흐름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10월 21일 오전 10시 경기도 분당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총동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11월 조찬 세미나, 12월 송년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許 填 作



‘해바라기’ 한지에 수묵, 55×69cm, 2005.

〈작가약력〉

- ▲87~90년 모교 대학원 졸업
- ▲89년 제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80년대의 형상 미술전
- ▲90년 젊은 모색 '90-한국화의 새로운 방향전
- ▲90~92년 현대한국회화전

- ▲95년 제1회 한국일보청년작가 초대전 우수상 수상
- ▲99년 한국화의 위상과 전망
- ▲01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동양화 paradiso전
- ▲02년 신소장품전 2002
- ▲개인전 11회
- ▲현재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법대 40회 동교회

후배에게 1천만원 지원

법과대학 40회 동교회(회장 朴敎善)가 극빈 재학생 후배 돕기에

훈올회

30회 전시회 성황

미대 출신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훈올회(회장 俞英濟)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제30회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沈竹子(회화49-55)·鄭晶姬(조소49-52)·李信子(응용미술50-55)·全明子(회화53-57)·李鶴淑(회화54-58)·金時用(응용미술56-60)·金芝烈(회화56-60)·金載姬(회화56-60)동문 등 74명의 회원과 한국을 대표하는 여류작가 12명이

출품해 총 90여 점이 소개됐다.

1980년에 결성된 훈올회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파리, 인도 등 해외에서 매년 작품전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또 매년 ‘종이전’, ‘흙전’, ‘섬유전’, ‘소품전’, ‘판화전’ 등의 다양한 주제로



개막식에서 미대동창회 金鳳九회장, 훈올회 俞英濟회장,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좌로부터) 이 韓惠洙(경제67-71) 국무총리의 부인 崔娥英(응용미술67-71) 동문의 작품 ‘바다II’를 보고 있다.

전시회를 꾸미며 동문간의 예술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南〉



문리대OB산악회

‘엘부르즈’ 등정 성공

문리대OB산악회(회장 曹圭培)는 최근 ‘2007 Elbrus expedition 원정대’를 결성해 지난 7월11~21일 유럽 최고봉인 러시아 카프카스산맥 엘부르즈(5천4백42m)를 등정했다.

이번 원정대에는 韓秀煥(동물66졸)·李雄淵(지리62-66)·金學中(화학66-71)·吳虎鍾(지리66-70)·崔鴻(수학66-74)·曹圭培(식물66-70)·李昇昊(수학68-73)·金逸明(의학70-77) 동문과

노익상 회원, 이상훈(중문 3년) 군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金學中·曹圭培동문과 노익상 회원이 등정에 성공했다.

문리대OB산악회는 지난 81년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산(6천9백59m) 등정에 성공한 이후 2004년 산악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중국 권륜산맥에 위치한 무즈타그아타(7천5백46m) 등반 및 실크로드 탐사, 2006년 아프리카대륙 최고봉인 킬리만자로를 오른 바 있다.

曹圭培회장은 “앞으로도 재학생들과 함께 7대륙 최고봉에 도전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柳明桓 주일본 대사
후지산 두 번째 등정

외교통상부 차관을 역임하고 지난 3월 주일본 대사로 부임한 柳明桓(행정66-70)동문이 30년 만에 일본의 최고봉인 후지산(富士山 해발 3천7백76m) 정상을 다시 밟았다.

1973년 제7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柳동문은 1976년 주일본 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할 당시 무박 산행으로 후지산을 올랐었다. 매년 30만명 이상이 오르는 후지산은 7~8월만 개방한다.

柳대사는 지난 8월 18일 서울서간 모교 국제대학원 朴英哲(경제58-63)초빙교수, 한국농구연맹 金榮秀(법학60-64 前문화체육부장관)총재, 아주대 건축학부 李五峰(교육61-70 前조선일보 사진부장)겸임교수, (주)진양 梁圭模(사회61-65)회장 등과 함께 후지산 산행에 나섰다.

해발 2천4백m인 고고메(五合目)에서 시작해 해발 3천4백60m에 자리잡은 큐고메(九合目)의 만년설 산장에서 1박을 하고 새벽에 정상에 오른 柳대사 일행은 운 좋게 운무를 뚫고 솟아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볼 수 있었다. 柳대사는 동행한 동문들과 1박2일간 고소증을 이겨내야 하는 힘겨운 산행을 하면서도 지난 30년간의 한·일 관계를 되새겨 보며 일본의 미래를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본보 李五峰논설위원〉



정상에 앉아 일출을 기다리는 柳대사(右)와 金榮秀총재

치과대학동창회

31회 동기회, 골프 우승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洪禮杓)가 지난 8월 30일 경기도 용인 한화프라자CC에서 柳陽錫(45-49) 원로동문을 비롯해 1백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0회 자선 친목골프대회를 개최했다.

28개조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31회 동기회가 단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개인전 챔피언조에서는 金志鎬(82-88)동문이 77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孫在雲(70-77)·白禧善(77-83)동문도 동타를 이뤘으나 후반 9홀 경기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신페리오 방식이 적용된 친선조에서는 崔楠燮(73-79)동문이 70.

4타로 安聖模(68-74)동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3위는 71.6타를 기록한 李壽栢(70-76)동문이 차지했다. 여성조에서는 韓松利(91-95)동문이 88타를 기록해 최고의 실력을 자랑했다.

이날 참가자 중 최연소인 朴鍾旭(92-97)동문이 2백50m를 기록해 통게스트에 올랐으며 니어리스트상은 4.45m에 안착시킨 朴炯國(82-88)동문이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후원금 모금도 이뤄졌다.

洪禮杓회장은 “이번 대회를 골프를 통한 친목뿐 아니라 동문들에게 후원문화를 확대시키는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며 “모인 후원금은 전액 스마일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FB동창회

와인강좌 2백여명 참석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炳五)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역삼동 리즈칼튼호텔 불룸홀에서 ‘제7기 환영식 및 와인 아카데미 초청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 및 내빈소개, 보르도와인아카데미 崔燾원장의 초청

강의, 교류와 화합의 순서로 진행됐다.

崔炳五회장은 환영사에서 “많은 패션산업경영자과정들이 있지만 7기까지 이어진 것은 모교가 최초”라며 “21세기 사회는 배움의 시대이고 지식과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의 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7기 박흥식 동기회장은 “힘센 막내로서 선배들이 이뤄놓은 과정을 더 훌륭하고 알차게 만들겠다”며 답사했다.

이날 崔炳五회장은 와인강좌에 사 용된 와인 1백30여 병을 협찬했다.

AFB동창회는 9월 17일 경기도 기흥 코리아CC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10월 중 모교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南〉

행 사 예 정

ACPMP동창회

9월 17일 골프대회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鍾珠)는 오는 9월 17일 오전 12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CC에서 제3회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2-2623)

수의과대학동창회

10월 5일 홈커밍데이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鄭英彩)는 오는 10월 5~7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대 및 본부 잔디밭에서 6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1230)

상과대학동창회

10월 6일 바둑대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濤)는 오는 10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금연기원에서 제6회 동문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61-2278)

의과대학동창회

10월 15일 함춘미술전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는 오는 10월 15~24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3층 가전홀에서 제5회 함춘미술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40-8183)

HPM동창회

10월 16일 조찬세미나

보건의료정책과정동창회(회장 姜普英)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7시30분 서울 장충동 소피텔 엠배서더호텔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63-7505)

노년층의 동문들에게 춤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제비’, ‘바람’을 연상할지도 모르겠다. 춤, 특히 사교댄스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음지의 문화였다. 불륜의 온상에서 건강한 스포츠문화로 자리잡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춤바람이 무섭다고 했던가. 요즘 각 구청 문화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스포츠댄스 강좌는 제일 먼저 마감하는 인기 종목이 돼 버렸다. 뿐만 아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브레이크댄스, 힙합 등을 소재로 한 뮤지컬은 한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바야흐로 춤의 세상이다.

화제의 동문

디큐브 댄스갤러리 金熙錫대표

이 도도한 물결을 타고 춤과 한판 승부를 벌이려는 젊은 동문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압구정동에 문을 연 댄스갤러리 金熙錫(경영92-96)대표가 그 주인공. 최근 각종 여성지와 신문은 ‘공인회계사 출신 역대 연봉 경영 컨설턴트가 춤 학원 원장으로 변신했다’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金동문은 그런 기사에 고마워 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금도 하는 일은 그때와 다르지 않아요.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기획이나 마케팅 성격의 업무가 많아요. 또 제가 학원을 차린 것은 댄스나 선생님을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학원은 춤 사업을 벌이기 위한 교두보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춤 학원 원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춤 기업 만드는 게 꿈

金동문은 존경받는 춤 기업을 만드는 게 꿈이다. 그래서 댄스갤러리(dancegallery.co.kr)를 열기 전에 디큐브(DQube)라는 법인설립을 먼저 했다.



“영화계 ‘sidus’, 연예계 ‘SM엔터테인먼트’처럼 한번 들으면 ‘아! 그 기업은 춤 회사지’라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이 길을 가기 위해 두 가지 영역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학원사업은 디큐브의 소매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한 파트는 기업 혹은 연예기획사, 구청 등 공공단체와 춤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온라인 콘텐츠 사업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런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춤의 일상화·대중화다. 金대표의 명함에는 ‘Dance Ubiquity’란 문구가 적혀 있다. 춤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심리적 절정감을 느끼는데 춤 만한 게

없어요. 노래를 부르거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사교댄스를 통한 교감이나 홀로 춤 때의 자아몰입은 굉장한 희열감을 주죠. 이런 춤을 연예인이나 몇몇 특정인의 장기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댄스갤러리는 이런 바람을 고스란히 담았다. 기존 댄스학원과 확실히 구별되는 연습공간과 편안한 인테리어 그리고 수업 내용도 철저히 고객지향적이다. ‘난생처음 입문반’, ‘Fun&휘트니스 재즈’, ‘섹시 뽀리’, ‘방송&결즈힙합’, ‘S라인 발레’, ‘내 아이의 엔터테인먼트 댄스’ 등 프로그램 명칭만으로도 이 학원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다.

문을 연지 4개월 밖에 안됐지만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객이 제법 많다. 학원생이 몇 명인지는 대외비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 자리 숫자라고. 金동문은 “20~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해서 그 연령대 분들이 많지만, 방학을 맞아 부모 손을 잡고 온 아이들도 꽤 많다”며 “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느끼한 막춤 잘 춰요”

金동문이 수석 컨설턴트 명함을 버리고 학원을 차린다고 했을 때 지인들은 ‘을 것이 왔구나’란 반응을 보였다. 대학원 지도교수는 ‘그래 너는 컨설턴트가 안 어울렸어, 너는 그렇게 하리라 생각했다’며 반기기까지 했단다. 그만큼 金동문은 학창시절 누구나 다 알아주는 춤꾼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했고 남들보다

쉽게 배우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학내 교양체육수업 가운데 볼룸댄스, 에어로빅 등의 강의를 재수강, 3강까지 하면서 춤을 배웠어요. 심지어 현대무용 수업까지 들었으니까요.”

모교 대학원 입학 후에는 포스코 스포츠센터에 개설된 스포츠댄스, 재즈댄스 강좌에 시간 날 때마다 참가했다. 졸업 후에도 공인회계사 준비를 하면서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즈댄스를 배웠다. 춤 경력만 15년 정도 되는 셈이다.

멋들어진 동작을 기대하고 춤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의외로 金동문은 느끼하면서 여성적인 ‘막춤’을 선보였다.

“제가 느낀 막춤을 잘 춰요. 하하. 섹시 코드의 여성적인 춤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여성적인 터치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학원 강좌 중 ‘난생처음 입문반’은 제가 한번 가르쳐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金동문 사무실 벽에는 타임誌 표지 몇 장이 붙어있다. 타임誌 커버스토리의 인물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저분들이 자기분야를 개척해 존경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표지를 늘 보면서 저렇게 돼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학원도 한번 들려봐 주시고요.”

가족 중 서울대인으로는 부친 金永泰(법학60-64)동문, 이모부 李奉雨(행정59-63)동문, 사촌형 李尙翼(경영86-91)·이동익(언어90-96)동문 등이 있다. 金동문은 아직 미혼이다. (南)



2천4백31명에 후기 학위수여

외국인, 석·박사 포함 총 95명

모교 소식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8월 졸업	총 회원
인 문 대 학	102	10,215
사회과학대학	132	13,278
자연과학대학	81	10,051
간 호 대 학	4	3,282
경 영 대 학	65	6,321
공 과 대 학	287	40,296
농업생명대학	98	19,941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33	4,934
법 과 대 학	76	15,583
사 범 대 학	130	24,937
상 과 대 학	—	6,723
생활과학대학	28	3,793
수 의 과 대 학	1	2,122
약 학 대 학	1	5,965
음 악 대 학	39	7,112
의 과 대 학	1	10,856
치 과 대 학	2	5,992
대 학 원	1,169	79,875
경영전문대학원	34	34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국 제 대 학 원	49	303
보 건 대 학 원	39	3,055
사 법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31	4,188
환 경 대 학 원	29	2,287
소 계	2,431	292,913
준 회 원	—	13,338
(특 별 과 정)	531	15,072
총 계	2,962	321,323

200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7~30일 각 단과대학(원)별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1천 80명, 석사 9백9명, 박사 4백42명 등 총 2천4백31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중 외국인 졸업생은 학사 19명, 석사 59명, 박사 17명 등 총 95명이다.

이로써 동창회 총 회원 수는 32만1천3백23명(준회원, 특별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 수와 동창회 회원 수는 표와 같다.

미술관

9월 29일까지 기획전

미술관(MoA) 관장 鄭馨民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체의 기억-‘후기-’증후군을 주제로 국내 작가만의 기획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정주영(서양화88-92)·정재호(동양화90-97)·김신일(조소91-99)·정상현(조소92-98)·조경란(서양화93-97)등문 등이 소중한 작품을 출품했다.

吳世榮교수 등 19명 정년퇴임

“가르침과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8월 31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李長茂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9명 교수의 정년식이 열렸다.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고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吳世榮(국문학)교수, 鄭玉子(국사학)교수, 李明賢(철학)교수, 金弘宇(정치학)교수, 車培根(언론정보학)교수, 宋文燮(통계

학)교수, 金星基(경영학)교수, 李敎一(기계항공공학)교수, 鄭進(농생명공학)교수, 權純國(조경지역시스템공학)교수, 李興植(수의학)교수, 金 旻(기악)교수, 申秀貞(기악)교수, 金靜子(국악)교수, 金宗善(의학)교수, 李孝杓(의학)교수, 許鳳烈(의학)교수, 嚴正文(치의학)교수, 金炯國(환경계획학)교수. <다음호에 프로필 게재>

음대 鄭台鳳학장 취임



지난 9월 1일 음악대학 학장에 작곡과 鄭台鳳(작곡72-80)교수(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鄭학장은 1984년 모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칼스루에 음대 KE 과정을 졸업하고 경북대·단국대를 거쳐 1995년 모교에 부임했다.

선배님,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⑧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동상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관 건물 우측에 세워진 나이팅게일 동상. 지난 2001년 3월 간호

대 신관을 건축한 삼성물산(건설 부문)이 기증했다.

모교 미술대학 崔仁壽학장과 제자들이 청동을 재료로 밤낮으로 봉사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촛불을 들고 있는 두 사람으로 형상화했다. 경북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타 간호대학이 실제 나이팅게일의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을 만든 것과 달리 한국인 간호사의 모습을 2인상으로 표현한 게 특색이다.



과학연구 네트워크 ‘유니넷’ 가입

90개 회원 대학과 학술교류 체결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7월 23일 오스트리아 과학부가 주관하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을 잇는 과학연구 네트워크인 유니넷(UNI-NET) 가입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모교는 Eurasia-Pacific Uninet의 회원으로, 90개 회원 대학과 자동으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유니넷은 오스트리아대학이 과

학기술부문의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부처에서 조직한 대학간 네트워크이다. 오스트리아의 4년제 연구대학 대부분이 유니넷 회원이며, 아시아 10여 개 국가의 대학들이 활동하고 있다.

유니넷은 공동연구, 방문교수, 장학금 지급, 공동 여름학기 운영 등 학술교류 활동 외에도 유럽·아시아간 산학협력 증대를 위한 R&

D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폭넓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니넷의 특이한 점은 각 회원 대학이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때 자신들의 이슈로 컨퍼런스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교는 이번 가입을 통해 회원 국가에 교환교수와 연구생을 파견하는데 합의하고, 향후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약속했다.

유니넷은 자체 심사를 통해 가입 대학을 결정하며 한국에서는 모교와 연세대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榮>

모교 외국인 학생회 'SISA'

신입생 유치·홍보활동 박차

모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만든 첫 자치학생회 'SISA' (SNU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가 2학기 개강을 맞이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SISA는 지난 7월 모교 李政宰 학생처장을 지도교수로 초빙하고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와 각국의 동창회 조직 준비를 위한 '한류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SISA 국제교류팀은 최근 40명의 각국 대표를 선임했다.

SISA는 이와 함께 외국인 재학생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9월 중순경 오리엔테이션, MT 등을 열어 학생회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그밖에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 재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한국인 학생 단체와 교류도 넓혀갈 예정이다.

SISA 회장을 맡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굴라모프 질소드(경영학과 2년)군은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한국 학생들에게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



를 소개하며 서울대가 진정한 글로벌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SISA는 지난 4월 창립대 모교 두레문예관에 'SISA 전용 라운지'를 개설했으며, 남녀 부회장과

이벤트팀, 국제교류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체육축제' 행사를 개최해 49개국 3백4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농구, 단체 줄넘기, 단체 줄다리기 등 스포츠를 통해 우정과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7월 1일 현재 모교 외국인 학생

은 학사과정 5백7명, 석사과정 4백32명, 박사과정 1백81명, 교환학생·방문학생 1백61명 등 1천2백81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어학연수과정 8백83명 등을 포함해 총 2천1백64명이 수학하고 있다.

우수 외국학생 유치 위해 도움주세요

재학생의 소리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배우다가 2003년에 서울시 교육청 초청으로 국비장학생으로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2006년 3월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SISA는 SNU 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의 약자로 '서울대 외국인학생회'입니다. 지난 4월경 모교 학생과에서 학생회 설립을 권유해 각국 학생대표가 만나 조직하게 됐습니다.

모교에서 SISA 설립을 권유한 계기는 서울대가 글로벌화하는 과정에서 먼저 현재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부터 파악해 서울대의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국인 학생 체육축제 담당자를 맡으면서 SISA 회장까지 됐습니다. 체육축제에서 외국인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최근 학생회는 모교 李政宰 학생처장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한류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대에 보다 많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서울대를 졸업한 외국인 동문들이 각국에서 동창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SISA 국제교류팀은 40명의 각국 대표를 확보했고, 지금까지 서울대 입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현재

신청 받은 희망자만 약 30명 정도 됩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서울대는 근로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2학기를 맞이해 SISA를 모르는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에게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 첫 행사로 오리엔테이션과 M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SISA가 생긴지 얼마 안 돼 많이 부족하지만 서울대 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협력해 조금이나마



굴라모프 질소드(경영06입)
모교 외국인학생회장(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편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ISA는 이미 수십 개국에 나가 있는 외국인 선배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끈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외국인 선배들이 각국의 서울대 동창회를 조직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에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배님들께서 SISA를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그 은혜는 외국인 학생들이 평생 잊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대 외국인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고, 한국인 재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 사이의 다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연구소

康錦實동문 초청 강연

여성연구소(소장 金世均)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3시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康錦實(법학75-79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고문 변호사)동문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다.

매월 1회 개최되는 '서울대인을 위한 여성리더 초청강연'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 지도자상은 무엇이며, 미래에 여성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 880-8951〉

치과병원 '관악 분원'

관악캠퍼스 후문에 2010년 개원

모교 치과병원(원장 張英一)이 2010년 개원을 목표로 서울 관악구 낙성대 인근 모교 후문쪽에 '관악 분원'을 건립한다.

내년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관악분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1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첨단 치과의료연구센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교는 센터 안에 첨단 연구시설과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 관악캠퍼스에 있는 1백여 개 생명과학(BT) 및 정보통신(IT) 연구기관들과 손잡고 차세대 치과의료기술

및 신재료를 연구개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관악분원의 세부 신축계획안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돼 내년 예산편성안에 반영된 상태다.

이번 관악분원 설립은 모교의 대형 연구개발 및 산·학 클러스터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모교는 서울 종로구 등에 분산돼 있는 모교 병원과 치과병원 등의 인력을 관악캠퍼스 근처로 집중시켜 대형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인문학의 르네상스를 ...

우리의 미래, 인문학의 발전에 달려 있다

우리처럼 반세기만에 근대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예는 서구 역사에서도 드물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인문학의 이름은 없었다. 모두가 공학, 과학, 경제학, 경영학 등에 매달려 인문학은 뒷전이였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이 무렵부터 문화란 단어가 신문 지면을 덮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다. OECD 수준에서는 경제와 과학기술은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 대열에서는 문화적 역량으로 창조·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지켜낼 수가

없다. 생존을 좌우하는 이 창조·창의성은 인문학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인문학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의 집적으로 형성된 학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방향이나 창의적 대안은 여기서 모색하거나 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한국은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뛰어들어 그 입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튼튼한 입지 획득을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 중 인문학의 육성은 시급한 것이다. 선진국의 주요 대학들은 어느 경우나

인문학의 튼튼한 기반을 자랑한다.

서울대학교가 세계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려면 인문대학의 육성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인문대학은 이제 사회적·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문대학의 육성, 그것은 이제 서울대학교 전체가 시급히 달성해야 할 과제가 됐다. 동문 제현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인문대 리모델링 모금 시작

모교 인문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 모금이 시작됐다. 지난 8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개최된 2007년 인문대 후기졸업식에서 인문대 77학번 동기회 玄武煥회장이 축사를 통해 인문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 모금을 시작하자고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기금 모금에 동참할 의사가 있으면 인문대 학장실(02-880-6001)로 연락하거나 다음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 농협중앙회 079-01-463196
 - 우 리 은 행 1005-001-106503
 - 국 민 은 행 425301-01-229453
 - 하 나 은 행 109-910008-66604
 - 신 한 은 행 100-022-521847
- 예 금 주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특별 인터뷰

李泰鎮 모교 인문대 학장

지난 8월말, 모교 관악캠퍼스 인문대 6동 3층에 있는 학장실을 찾았다. 소파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자리에 놓인 회의탁자, 수북히 쌓인 책과 서류들...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학장실 분위기였다. 컴퓨터 테이블에서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던 李泰鎮(사학61-65) 학장이 일어나 회의탁자로 기자를 안내했다.

다음은 인문대학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요즘 사회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대학 캠퍼스 안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인문대학도 많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중론인데, 학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변화의 주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문학 교육의 내실화’, ‘인문대학의 국제화’, ‘인문학과 사회의 소통’이 그것입니다.”

- ‘대학의 국제화’나 ‘인문학과 사회의 소통’은 요즘 사회에서 대학에 요구하는 것인데요. 인문대학의 국제화라는 목표를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우선 모교 인문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 영어가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집중코스를 언어교육원에 2개 반을 개설했습니다. 가난한 인문대 예산을 할애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수료식에 가 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얼굴이 없어 보이더군요. 적은 돈으로 정말 큰 효과를 봤다는 생각입니다.



외국어교육 강화·최고지도자과정 운영 인문학 ‘내실화·국제화·사회소통’ 목표

또 이번 겨울계절학기에는 고급수준의 제2외국어 수업을 각 언어권 현지에 하기로 했습니다. 기초교육원의 지원을 받았죠. 1백여 명의 학생이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기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북경대, 동경대에 인문학 정기학술회의를 하자고 했더니 금방 하자는 응답이 왔어요. 2008년 3월 말에 ‘PESETO 인문학 학술회의’를 서울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최고 대학간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인문학의 위상을 점검하게 될 겁니다. 물론, 동북아 학문의 교류와 발전에 기여

하는 계기도 되겠죠.”

- 이번에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을 열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고전 공개강좌’도 10개 강좌가 10월초에 열린다고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문학과 사회의 소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문대학에서 일반사회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이제 상아탑에서 나와 일반인들과도 호흡을 함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사회와 동떨어진 학문’, ‘비생산적 학문’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죠. 그 전에도 인문대학에서 여러 번 공개강좌를 기획했는데, 이번에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호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전 인문학도 학생교육을 넘어 사회 전체와의 대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서 ‘인문학 교육의 내실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언급하신 외국어 교육 강화도 인문학 교육의 내실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인문대 학생들이 고시나 취직시험 준비로 전공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학장이 되기 전에는 학생들이 전공선택의 시기를 늦추고, 전과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선택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 당국과 제2전공 의무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심화전공 중에서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하자는 내용이지요.”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문대학도 세계적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인문대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최상위권으로 나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의 경쟁력 향상은 대학 구성원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펀드가 33조라고 하는데, 서울대학교는 그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죠. 인문대학의 재정은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축입니다. 동문들과 사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담 = 安興燮면집장)

인문학에 다시 눈뜰 때

30년 넘은 인문대 건물 재건축키로

상징성 고려 ... 공사비 3백50억 소요



인문대 2·3·5동으로 둘러싸인 해방터의 리모델링 후 조감도

인문대는 30여 년이 지난 건물의 리모델링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인문대학의 교육환경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새로운 시대의 인문학이 추구하는 학문적 요구를 수용하기에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계획은 낡은 건물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8동을 재건축하고 나머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는 인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인문학에 대한 시대적 요

청을 수용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학문의 중심인 인문학과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심장부에 위치한 현재 인문대학의 상징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번 계획안은 인문대학, 환경대학원(원장 金基浩)의 환경계획연구소, 그리고 국내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대표적 업체인 삼우건축사사무소와 간담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인문대는 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총 공사비가 3백5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하연의 유래

‘시·서·예’ 능했던 자하 申緯에서 유래

인문학 가치 되새기고자 동상 세울 계획

자하연, 서울대인에게 친근한 이름이다. 관악캠퍼스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면서도 풍광이 빼어난 곳이다. 이 연못 이름은 조선시대의 이곳 지명에서 유래한다. 관악캠퍼스는 본래 시흥군 자하동(紫霞洞)이었다. 이곳의 지명을 호로 쓴 조선시대 유명인이 있다. 紫霞 申緯(1769~1845)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시·서·예 三絶’이란 평을 들은 문인이다. 시 짓기, 서예, 그림 이 세 가지에서 당대 최고봉이란 평을 들은 사람이다. 저 유명한 秋史 金正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그를 들었다.

자하 신위는 지금 규장각 건물이 있는 감골에서 살았다. 서울 장흥방(長興坊:현 종로구 적선동과 내자동 일대)에 본가가 있었지만 이곳에 향제(시골집)가 있어서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놀고 청년시절에는 이곳에서 공부



새롭게 단장된 여름날의 자하연

하면서 자연을 읊다가 아예 자하란 호를 썼다. 그는 정조대왕이 규장각의 초계문신(抄啓文臣: 왕으로부터 독서 휴가를 받는 우수 문신)으로 부를 정도로 문명이 높았다. 관악캠퍼스에 이런 인물이 살았다면 기릴만하지 않은가.

인문대학은 신 자하와 함께 낭만에 젖어보고자 이 연못가에 그의 동상을 세울 계획이다. 그가 중국에 사신으

로 갔을 때 어느 중국 멋쟁이 선비가 그려준 ‘자하소조’(紫霞小照: 자하를 그린 소품)가 최근 공개돼 입상의 근거를 얻었다. 세월이 수상할 때 관악 골짜기에는 도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평시에는 이규보, 이색, 유성룡 같은 선비들이 산사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던 곳이다. 관악 캠퍼스는 이처럼 학문의 향기가 피어오른 지 오랜 곳이다. (榮)

인문대 77학번 동기들이 지난 5월 26일 토요일 입학 30주년을 기념해 모교 방문행사를 개최하고 동기회(회장 玄武煥 독문77-81)를 결성했다. 李泰鎭학장님도 축사에서 “오늘 참 해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박찬 감동을 표현했듯이 이번 모교 방문행사와 동기회 결성은 인문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입학 3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우리 모두는 그날 참 행복했다. 졸업한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처음 보는 친구들을 꺼안으면서 행복했고, 30년 전 5월의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를 맞아주는 자하연의 향취를 다시 느끼면서 행복했고, 8동 대형강의실에서 모교에 재직하고 계신 옛은 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행복했다.

李明賢교수님(철학과)과 李成珪교수님(동양사학과)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덧 50대 초반에 들어선 우리들은 모두 30년 전으로 되돌아가 밤늦게까지 불전동 옛 일미집 근처의 여러 술



집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동기회 결성 ... 장학금 전달

그날은 또 가슴 뿌듯한 날이었다. 동기들의 정성을 모아 인문대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으로 학업에 전념할 귀여운 어린 후배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우리는 그날 밤 술자리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건배를 하며 인문대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나 아직도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지역별로 지회도 결성했고, 경조사도 있으면 찾아가고, 등산모임, 테니스모

玄武煥 인문대 77학번 동기회장 특별기고

인문대 동창회를 결성하자

임, 골프모임 등도 만들어 서로의 건강도 챙겨주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더 소중해진다고 하는데, 동기회가 이렇게 고마울 수 없다. 평생 잊고 지내게 될지도 모를 소중한 옛 친구들을 만나 다시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동기회를 멋지게 꾸려 나가야겠다.

“인문대 동창회 결성이 꿈”

나에게 또 하나의 꿈이 있다. 이번 77동기회 결성을 계기로 다른 학번들의 동기회도 결성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처럼 결성된 기별 동기회를 토대로 인문대 동창회가 결성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77학번 동기회가 결성된 이후 동기들 사이에서 인문대 동창회를 결성해 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목소리가 인문대 동창회 결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서울대 가족

文相翼 前남부제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아들·사위 등 법조인 8명 포함 17명이 동문

20년간 가족 위한 ‘起福장학회’ 설립·운영

매년 연말이 되면 文相翼(법학49-54 前 수원지검장·前변호사)동문 가족과 형제, 손자와 조카까지 대가족이 분위기 좋은 식당에 모여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내년에도 모두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가자고 다짐한다. 그런데, 20여 년 전부터 꼭 빼먹지 않는 특별순서가 있다.

文相翼동문이 그의 모친 申起福여사가 별세하면서 남긴 집 한 채를 자녀와 후손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해 ‘起福장학회’ 명의로 이날 모임에서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것.

이처럼 지난 20년간 탈(?)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이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출연하고 있고, 학창시절 장학금을 받았던 자녀와 손자들이 대학을 졸업해 사회인이 된 후 환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보태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단한 일도, 자랑할 일도 아닌데... 1년에 한 번 다들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잖아요. 무언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데에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처음 文相翼동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文동문은 “가족 중에 동문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막상 가족표를 만들어 보니 동문이 스무명 가까이 돼 자신도 놀랐다고.

“평소 주변에 그저 법조인이 많다는 생각만 해왔는데, 동창회 덕분에 찬찬히 형제들의 가족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면서 ‘다들 각자의 분야에서 잘 지내는구나’라는 마음과 모교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웃어 보인다.

文相翼동문의 가족 중 3남 文珖燮(공법85-89 대법원 재판연구관)동문과 사위 車東旻(법학77-81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동문을 비롯해 여동생 文正子(약학63-67)동문의 남편인 매제 宋宗義(법학59-64 前



▲앞줄 세 번째 文相翼동문, 뒷줄 오른쪽 맨 끝 文珖燮동문

◀◀앞줄 文正子동문, 한 명 건너 宋宗義동문, 뒷줄 宋美賢·趙成堧동문

◀앞줄 文太燮·車雲玉·文相翕동문, 뒷줄 文章燮동문

법제처장)동문, 외사촌동생 申昌彦(법학60-64 변호사·前헌법재판소 재판관)동문, 동서인 柳明建(법학66-70 변호사·前서울고검 검사)동문과 鄭寅鳳(법학71-75 변호사·前서울지법 판사)동문, 조카딸 宋美賢(심리89-93 美하버드대 박사학위)동문의 남편인 조카사위 趙成堧(사법85-89 美켄트대 교수·前재경부 사무관)동문까지, 무려 8명이 법대 출신이다.

또 형제 중에는 文正子동문 외에 남동생 文相翕(전자공학60졸 前Measurex社 중역)동문과 막내남동생 文相翕(화학공학64-68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동문이 모교를 졸업했다.

이밖에 큰처남 朴應華(의학59졸 前미국의사)동문을 비롯해 文相翕동문 가족 가운데 부인 車雲玉(수학69-73 한성대 멀티미디어 공학과 교수)동문, 장남 文太燮(전기공학96-02 美스탠포드대 박사과정)·차남 文章燮(의학99-05 군의관)동문 그리고 장인 車基璧(정치46-50 성균관대 명예교수·학술원

회원)동문이 서울대 가족을 이루고 있다.

법조인 가운데 은퇴 후 생의 마지막 장을 자연과 함께 지내고 있는 동문은 文相翼동문과 宋宗義동문. 동기 중 유일하게 고시 사법과와 행정과를 동시 합격했던 文相翼동문은 27세의 젊은 나이에 가장이 되면서 책임감과 너그름으로 검사 30년, 변호사로 20년을 봉직했다. 현재 文동문은 일가 종친이 잠들어 있는 선산을 가꾸며, 평생 배우고 싶었던 철학공부에 여념이 없다고.

文相翼동문을 사표로 삼아 형님으로 모시며 격동의 세월을 함께 지냈던 宋宗義동문은 법제처장을 끝으로, 은퇴 후 충남 논산에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양촌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군법무관 시절, 베트남 참전 후 고국으로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宋동문은 할아버지 국토를 보며 ‘푸르름을 되찾아줘야겠다!’고 결심, 공직생활 30년간 양촌리에 밤나무를 가꾸은 자연인. 농한기에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음악여행’과 ‘딸에게 주는 편지’를 탈고하며, 카메라에

文相翼(법학49-54)동문 가족

- 남동생
文相翕(전자공학60졸)
文相翕(화학공학64-68)
- 여동생
文正子(약학63-67)
- 처남
朴應華(의학59졸)
- 매제
宋宗義(법학59-64)
- 외사촌동생
申昌彦(법학60-64)
- 동서
柳明建(법학66-70)
鄭寅鳳(법학71-75)
- 제수
車雲玉(수학69-73)
- 사위
車東旻(법학77-81)
- 3남
文珖燮(공법85-89)
- 조카딸
宋美賢(심리89-93)
- 조카사위
趙成堧(사법85-89)
- 조카
文太燮(전기공학96-02)
文章燮(의학99-05)

자연을 담아 ppt로 제작, 지인들에게 발표하기도 한다고.

가족 가운데 가장 바쁜 동문은 내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14회 세계촉매학술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文相翕교수와 이공대 학장을 지내고 여성과학단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車雲玉교수부부. 文相翕동문은 그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젊은 연구원들과 해맑게 웃고 있는 MT사진이 언제나 떠 있을 정도로 친화력과 연변이 뛰어난 교수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가훈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文相翼동문은 ‘盡人事待天命’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늘에 맡기면 반드시 이뤄진다”면서 “은퇴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한시라도 젊을 때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表)

콩트 릴레이

왕의 눈물

金 成 一

(본명 金斗一·기계공학59-65)

소설가



“왜 안 된다는 거요?”

왕의 물음에 선지자 나단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집인데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처를 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소?”

“그것은…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집을 내고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는 뜻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것이지요.”

왕은 그래도 납득할 수가 없는지 나단을 노려보았다.

“이보시오, 나단. 하나님은 시골의 목동이었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소. 그런데 왕이 된 나는 지금 이렇게 안락한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단 말ियो.”

그는 농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형들은 모두 키가 크고 잘 생겼으나 그는 키가 작고 용모도 그만 못했다. 그는 언제나 형들의 뒷전이었다. 외톨이가 된 그는 들에 나가 양떼를 돌보며 버릇처럼 물매로 돌을 던졌다. 누구를 향하는지도 모르는 원망을 돌에 실어 날려보내곤 했던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분은 당신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도 그랬다. 그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그가 혹시 새 인물을 찾고 있는 것 아니야?”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명해 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았다.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한데다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 아말렉을 공격했을 때가 그랬다.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나 사울은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남겨 놓았다. 이 일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왕을 크게 나무랐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중한데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장차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그의 일곱 아들들을 만났던 것이다.

“다른 아들은 더 없습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막내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만나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새와 모든 식구들이 의아해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은 키와 용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람답다고 하셨다.”

선지자가 떠난 후 모두 그 일을 잊었으나 다윗은 잊지 않았다. 그는 수금을 켜며 키와 용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부친의 심부름으로 전선의 형들에게 갔던 다윗은 키가 6규빗이 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았다. 그는 이스라엘 군에 옥살을 퍼붓고 있는 키 큰 사내를 보고 적개심이 끓어올랐다.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20살이었는데도 군복이 커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는 군복을 벗어 던진 채 물매와 돌 다섯 개를 들고 골리앗과 맞섰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일러스트레이션 吳洙亨 (서양화02 - 06) 동문

다윗의 돌은 골리앗의 미간에 명중했다. 그가 쓰러진 골리앗의 머리를 베자 이스라엘은 총공격을 하여 대승을 거뒀다. 사울왕은 개신 장군이 된 다윗을 사위로 삼았다. 그러나 다윗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자 그를 죽이려 하므로 왕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는 자신을 따라나선 가난하고 억울한 자 4백명과 함께 10년 동안의 도피 행각 끝에 결국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던 것이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이 12지파의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세 때였다. 두로왕이 그를 겁내어 건축 자재와 기술자들을 보내 왕궁을 지어줬다. 시골의 목동이었던 그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준 하나님을 위해 그는 성전을 짓고자 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왜 안된다는 거요?”

다윗이 나단을 추궁하자 난처하게 된 그가 말했다.

“너무 삼심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후일 왕의 자손 중에서 하나를 택해 그분의 집을 짓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나단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실토를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집을 짓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나단을 노려보았다.

“세상에 군인 아닌 왕이 어디 있단 말ियो? 또 나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쟁을 해도 되겠는지 물었고 나가고 좋다고 하시면 출전을 했소. 전쟁을 해도 좋다고 허락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안되다는 것은 또 뭐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벌떡 일어섰다.

“결국,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오라….”

“키나 용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구요? 모세도 애굽에 있을 때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 나는 왜 안 된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도 키가 크고 잘생긴 자라야 성전 지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구.”

나단은 열심히 고개를 저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왕께서 키가 크고 준수하셨다면 그 오랜 고초를 극복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키를 주시지 않았으나 다른 좋은 것을 다 주셔서 여섯 명의 아내와 후궁에 아들까지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왕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나는 군인이니까.”

그 후로 왕은 성전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공격해 정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왕은 모압의 포로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 요압 장군에게 자기 키 만한 줄 하나를 건네줬다.

“이게 뭡니까?”

“저 놈들을 이 줄로 재어 이보다 큰놈들은 다리를 모두 잘라라.”

“두 다리를 다 자르면 출혈이 심해 죽을 것입니다.”

“그럼 목을 자르던지.”

“키가 큰 것이 죄가 뭡니까?”

그가 다시 묻자 왕은 싸늘하게 웃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그러다 전쟁에도 실증이 났는지 왕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요압 장군을 불렀다.

“장군, 나도 이 정도면 할만큼은 하지 않았어?”

“그러문요.”

“암몬 쯤은 장군이 나가도 되겠지?”

“물론입니다. 병력만 주십시오.”

왕은 요압 장군을 전선에 내보내고 왕궁에 남아 있었다.

“난 군인이 싫어졌어. 나는 왕이란 말이야.”

왕궁에 혼자 남아 있던 왕은 옥상 위로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다. 알아보니 전선에 나가 있는 요압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다. 왕은 여자를 불러 그녀와 동침했다. 유부녀와 간음해 이미 십계명의 하나를 범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감추려고 그 남편을 휴가로 오게 해 집으로 보내려 했다.

“동료들이 전쟁 중인데 저만 편하게 잘 수는 없습니다.”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병영에서 밤을 보냈다. 왕은 다시 그를 전선으로 귀대시키며 요압 장군에게 쓴 편지를 쥐서 보냈다.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 죽게 하라는 지시였다. 이렇게 해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십계명 주에서 다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어긴 것이었다.

“왕께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와 아뢰었다.

“무슨 일이요?”

“많은 양을 가진 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오직 한 마리뿐인 새끼 양을 빼앗아서 먹기 위해 잡았다고 합니다.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난한 농부의 막내로 자란 왕은 늘 자신이 가난한 자이며 자신을 가난한 자의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듯이 대답했다.

“그 부자는 죽을 죄를 범한 것이오.”

그러자 나단이 말했다.

“왕께서 바로 그 부자입니다. 왕께서는 이미 여섯 아내와 많은 후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여덟 형제의 막내로 자란 눈치가 빠른 왕은 상황을 빨리 파악했다. 키와 용모 때문에 화를 내다가 그만 죽을 죄를 범한 것이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으며 고백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소.”

왕은 밤마다 눈물과 통곡으로 침상을 적시며 부르짖었다.

“주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마침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사하셨으니 왕께서 죽지는 않겠으나 이 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큰 비방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 장차 당신의 자손들이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사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왕의 안색이 밝아졌다.

“이보시오, 나단.”

“네, 말씀하십시오.”

“성전을 내 손으로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나 내가 그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어떻겠소?”

“그야… 뭐 괜찮겠지요.”

다윗은 크게 기뻐하며 그 때부터 사람들을 모아 성전 지을 돌을 다듬고 두로에서 백향목을 운반해 왔으며 금 10만 달란트와 은 1백만 달란트와 많은 놋과 철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후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다. 그로부터 다시 6백년이 지나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는 땅 위에 돌로 성전을 짓지 않고 사람들 가슴속에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다크호스? 찻잔 속 태풍?

文國現 前유한김벌리 사장이 지난 8월 23일 ‘동북아 CEO’를 표방하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20명 안팎에 달하는 범여권 대권주자 리스트에 1명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범여권 안팎에서 文 前사장의 대권 레이스 합류는 단순히 1명이 더해졌다는 산술적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부 인사 출신의 ‘제3의 후보’격인 文 前사장의 가세로 기존 정치권 출신 후보들이 고만고만한 ‘도토리’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범여권 대선 구도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서다.

33년간 몸담은 기업을 뒤로하고 ‘국민의 숲’을 향한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文 前사장의 대권도전은 그야말로 ‘모험’이다. 65세까지 재직하면 받을 수 있는 수십억원대의 스톡옵션도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대학시절 유한양행 창업자인 柳一韓박사의 전 재산 사회 환원 사실에 감동받아 74년 유한김벌리에 평사원으로 입사, 고속승진 코스를 거쳐 95년 46세 나이로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고 며칠 전 이사회에서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12년간 CEO로서 장수했다. 2003년부터는 김벌리 클라크의 북아시아 총괄사장도 겸임, 전세계 곳곳을 누볐다.

IMF 사태 직후인 98년 도입한 4조2교대 등 노사상생, 평생학습, 윤리경영 모델은 대표적 경영혁신 사례로 두고두고 재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그는 환경운동 등 NGO 활동에서도 활약을 보여줬다. 생명의 숲 공동대표, 서울 그린트러스트 재단 이사장, CEO 지속가능경영포럼 회장, 한국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이사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초빙교수 등 ‘본업’ 외에도 수십 개의 ‘명함’을 가졌다.

연봉의 절반을 매년 시민단체 등에 기부해 왔다는 점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몸을 낮추며 미소를 짓는 ‘겸양지덕’의 자세도 인상적인 대목이다.

그는 鄭雲燦 前서울대 총장과 함께 일찌감치 범여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다. 대권 도전 요청에 수개월간 확답을 피한 채 그저 방긋이 웃기만 했던 그지만 23일 대선 출정식에서는 평소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출마선언문을 읽어 내리는 동안 간간이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으며 ‘취업을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팔아도 좋다’고 하소연했던 한 청년실업자와의 만남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등 그야말로 격정을 토해냈다.

한나라당 李明博후보를 겨냥, 이번 대선을 ‘건설, 재벌 중심 가짜 경제’와 ‘성장·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사람, 중소기업 중심 진짜 경제’의 대결구도로 규정하는가 하면 “후보는 정신적으로 이미 패자이며 온 국민에게 기업인의 이미지를 나쁘게 부각시킨 죄가 굉장히 크다.” “땅투



宋 秀 慶

(영어교육93-98)

연합뉴스 정치부 기자

기, 가족 부자 만들기에 여념 없던 재벌 종사자가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며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문턱을 절감한 채 중도하차한 鄭雲燦 前총장의 학습효과 때문일까. 文 前사장은 얼마 전 창당한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일단 독자 세력화를 통한 ‘마이웨이’를 택했다. 설 불리 기성 정치권에 몸을 싣었다 ‘원오브템’으로 전략하느니, 차라리 독자조직 구축으로 생존기반부터 탄탄히 다지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몸을 던진 文 前사장의 ‘선택’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정책 개발에 힘을 쏟으며 내공을 쌓았

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중심 발전 전략, 한반도·동북아 주변 구조 재편 등 21세기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여권의 ‘신상품’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같은 CEO 출신이자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클린 CEO’의 이미지를 내세워 각종 의혹이 제기된 李明博후보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기본 구도도 갖췄다.

하지만 히트 상품에 랭크될지, 아니면 수많은 다른 제품에 묻혀 조기단종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아직도 ‘文國現이 누구야?’하고 되묻는 이가 적지 않고 기존 정치권 출신 후보들에 비해 조직에서 턱없이 힘이 달리는 게 현주소이다.

출마 선언 행사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뒤늦게 시작했지만 국민만을 바라보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답한 文 前사장의 얼굴에는 불확실하고 녹록치 않은 미래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희미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정치권은 文 前사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날 “하루빨리 합류하라.”(대통합민주신당), “진짜 경제를 하겠다면 국정실패세력의 간판은 되지 말라.”(한나라당)며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였다.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그를 기다리는 수많은 난관의 전조인 듯 느껴졌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동문기자 취재수첩

아프가니스탄 한 달 단상

“네, 저는 분당 샘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피랍 00일째,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며...”

새벽 6시가 되면 밤을 샌 방송사 기자들이 유령 같은 얼굴로 마이크를 들고 중계를 하기 시작한다. 표정은 비장하게, 목소리는 엄숙하게, 가족들의 슬픔을 내 얼굴과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게 1분30초 남짓한 방송중계를 마치고 나면 의자에 허리를 기대고 김밥이나 전날 사놓은 햄버거를 먹으면서 중얼거리는 것이다.

“죽겠네.”

지난 7월 2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국민 23명이 납치당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뒤 며칠 째 벌어진 풍경이다.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가족들 눈에선 피눈물이 날 듯 하고 외교부 공무원들 얼굴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한 달 째 취재 전쟁을 치르는 기자들 입에서는 단내가 난다.

피랍자 가족대표를 맡은 청년은 며칠 만에 얼굴이 그야말로 잿빛으로 변했고 줄담배를 피우는 횟수도 늘어나는 것 같았다.

며칠 지나면서 눈물이 다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화장실에 있노라면 세면대에서 남몰래 훌쩍거리며 눈물을 닦아내는 피랍자 어머니의 절절한 흐느낌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를 걸러 한 번 풀로 야근을 하다보니 기자들은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다. 피곤에 몽롱한 상태로 잠았던 말들을 깨낸다.

“아니, 솔직히 선교하러 간 거 맞잖아. 재작년 아프가니스탄 갔다 온 교회 봉사단의 동영상에도 선교라고 명시돼 있던걸. 종교적 이념 때문에 무리해서 간 거라면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하지만 이쯤에서 누군가 “그래도 스물셋 목숨이 달린 일이야”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피랍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교회’, ‘선교’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족들의 요청을 언론이 순순히 따라주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이번 피랍사태의 배경에는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먼저 시작한 통일교를 견제하기 위해 개신교 측에서 최근 몇 년간 의료 봉사팀을 활발하게 운영해 탈레반을 자극해 온 사실이 있다는 건 묻혀버리고 말았다. 종교가 삶의 전부나 다름없



李 定 垠

(소비자이동학00-05)

MBC 수도권팀 기자

는 이슬람 사람들을 개종시키겠다고 나서다니,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해외봉사단원들은 이슬람의 종교나 종교관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몰이해의 극치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논쟁도 수그러들고 답답한 협상상황에 무기력감이 느껴졌다.

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우리정부 대표가 무장단체와 대면협상을 벌이게 된 건 알고 보면 무척이나 치욕스러운 상황이라고, 갈광질광 외신

보도가 쏟아지는 건 그들이 구경하기에 신난 제3자이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그러다 한 달을 넘기니 이런 상황마저도 일상이 돼 버렸다.

가장 많이 달라진 건 가족들의 태도와 모습.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공세에 피해 다니기만 했던 이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성명서 발표며 입장 발표며 카메라 앞에 제발로 선다. 며칠에 한 번씩 UCC 동영상 만들어 배포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들의 대사관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충격, 절망, 분노...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이 시간을 견뎌 온 가족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일까.

객관적 관찰자의 위치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피랍자들이 돌아오면 내가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순식간에 남아있던 19명이 돌아와 버리자 맥이 ‘탁’ 풀렸다.

쓸데없는 감정이입이라 스스로 질타하기도 하지만 아, 내가 사람 사는 이야기 전하러 기자하고 싶었구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동 정

수 상

▲**愼鏞廈**(사회57-61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한성학원 이사장)=지난 8월 8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수여하는 제3회 학술상 수상.

▲**金光圭**(독문60-64 한양대 명예교수·시인)=오는 10월 25일 서울 동교동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문학과지성사가 주관하는 제19회 이산문학상 수상.

▲**姜信誠**(동물65-69 경북대 교수)=지난 8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한국동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14회 관정동물학상 수상.

▲**蔡尙植**(국사70-74 부산대 교수)=지난 8월 20일 경북 군위군 인각사에서 제2회 일연학술상 수상.

▲**南重秀**(경영75-79 KT 사장)=지난 7월 1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센터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제정한 제1회 '2007 대한민국 창조경영인상' 수상.

▲**金泰坤**(조소86-92 국민대 교수)=지난 6월 25일 서울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제18회 김세중청년 조각상 수상.

▲**徐允晋**(기악94-98 피아니스트)=지난 7월 이탈리아 Valeria Martina 국제음악콩쿠르와 Italian Festival 국제음악대회에

서 1위. 또 27회 바르토크·카발레프스키·프로코피에프 국제피아노대회에서 Prokofiev상 수상.

▲**尹五洙**(행정95-97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최근 모교 행정대원 국가정책과정 64기 수료식에서 '공공개발사업 추진의 갈등·분쟁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로 최우수 논문상 수상.

▲**최혜성**(기악99-03 미국 이스트만 음대 박사과정)=지난 8월 12일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열린 제6회 미국 플루트협회 콩쿠르(영아티스트부문) 우승.

인 사

▲**崔順達**(전기공학50-54 前제신부 장관)=지난 8월 22일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에서 제11대 대덕대 학장에 선임.

▲**朴聖祚**(정치55-59 독일 베를린 자유대 종신교수)=지난 8월 20일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석좌교수에 선임.

▲**姜賢旭**(외교57-61 前국회의원·환경부 장관·전북도지사)=지난 8월 22일 군산 호원대 석좌교수에 선임.

▲**鄭城鎭**(법학58-63 前대검 중수부장·前국민대 총장·국가청렴위원장)=지난 8월 8일 법무부장관에 임명.

▲**鄭聖鳳**(농업교육63-67 한국교원대 교수)=지난 7월 31일 청석학원(청주대) 제8대 이사장에 취임.

▲**李相龍**(행정67-71 前예금보험공사 사장·한국은행 감사)=지난 8월 21일 제50대 손해보험협회 회장에 선임.

▲**任祥奎**(금속공학68-72 前기획예산처 예산실장·前과학기술부 차관·국무조정실장)=지난 8월 8일 농림부장관에 임명.

▲**尹大熙**(경영69-73 前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지난 8월 8일 국무조정실장에 임명.

▲**金聖眞**(경영70-74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지난 7월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5대 조달청장에 취임.

▲**李鍾伯**(행정70-74 前청와대 사정비서관·前인천지검장·서울고검장)=지난 8월 8일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金容珉**(경제70-74 前재정경제부 세제실장·조달청장)=지난 7월 27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임명.

▲**具潤謨**(화학공학71-75 인하대 교수·한국생물공학회장)=지난 8월 1일 인하대 공대 학장 겸 공학대학원장 겸 산업과학기술

연구소장에 취임.
▲**金鍾聲**(의학71-77 모교 마취과학교실 교수)=지난 8월 24일 모교 병원 어린이병원장에 선임.

▲**吳秉熙**(의학71-77 모교 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원장)=지난 8월 24일 모교 병원 진료부원장에 선임.

▲**梁峯烈**(정치72-76 前김대중대통령 비서관·서강대 초빙교수)=지난 8월 20일 주말레이시아 대사에 임명.

▲**南相男**(체육교육72-76 한양대 생활스포츠학부 교수)=지난 8월 1일 한양대 안산캠퍼스 사회교육원장에 취임.

▲**朴昇柱**(경영72-76 前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원)=지난 8월 8일 여성가족부 차관에 임명.

▲**宋光鏞**(교육72-76 서울교대 교수·한국초등교육학회 회장)=지난 8월 2일 서울교육대학교 제14대 총장에 임명.

▲**林英鹿**(국어교육73-77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지난 7월 27일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취임.

▲**申鳳吉**(외교74-78 前외교통상부 공보관·주중 공사)=지난 8월 20일 주요르단 대사에 임명.

▲**劉震龍**(무역75-79 前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차관)=지난 8월 20일 을지대 여가디자인학과 교수에 선임.

▲**趙太庸**(정치75-79 前외교통상부 장관 특보)=지난 8월 20일 주아일랜드 대사에 임명.

▲**成明勳**(의학76-82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지난 8월 24일 모교 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원장에 선임.

▲**金華鎭**(사회교육77-81 前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비서실장·경기도 교육청 부교육감)=지난 8월 1일 모교 사무국장에 임명.

▲**고 산**(수리과학96-0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지난 9월 5일 내년 4월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에 탑승할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에 선정.

행 사

▲**李長茂**(기계공학63-67 모교 총장)=지난 8월 20~24일 독일 베를린 공과대와 베를린 자유대, 영국 맨체스터대와 케임브리지대를 방문, 교류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

▲**金東輝**(경제48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지난 6월 15일 경기도 광주시 남촌CC에서 가진 골프경기에서 84타로 '에이지 슈트'를 기록.

▲**朴英子**(국어교육46-50 세계시인협회장·노원문인협회 고문)=최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열린 세계 각국의 시인 모임에서

‘正史와 정신대와 박영자’란 주제로 특강.

▲**安亨一**(성악47-50 모교 성악과 명예교수·테너)=지난 9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자들과 함께 ‘Golden Voice’ 개최.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대한의사협회 창립 1백주년위원장·본회 부회장)=지난 8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민의학박물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패션쇼 개최.

▲**金璟東**(사회55-59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학술원 회원·글로벌 서울포럼 이사장)=최근 서울 서초동 수포교교회 창립 1백주년 포럼에서 ‘한국사회의 변동과 교회혁신의 과제’란 주제로 특강.

▲**鄭根謨**(물리55-59 명지대 총장·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지난 8월 16일 서울 청과동 백범기념관에서 자서전 ‘정근모의 삶과 비전: 獻身’ 출판기념회

개최.

▲**康賢斗**(사회56-61 모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프레스센터 서울갤러리에서 ‘수채화 작품전 - 지구촌 풍경기행’으로 두 번째 개인전 개최.

▲**申秀貞**(기약59-63 前모교 음대학장)=지난 9월 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마이 라이프, 마이 뮤직’이란 주제로 정년기념 음악회 개최.

▲**卞柱仙**(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지난 8월 14~16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와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아동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4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車培根**(국어교육60-65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오는 10월 10일 서울 한강 유람선(여의도 선착장 진성나루)에서 정년기념문집 출판기념회 개최.

▲**金素琰**(조소63-67 前경원대

사회교육원 교수)=지난 8월 1~30일 서울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공예관에서 ‘백자 위에 그린 민화’를 주제로 작품전 개최.

▲**朴憲烈**(화학공학67-71 중앙대 교수)=지난 7월 23일 몽골국립대에서 열린 제23회 한·몽국제학술대회에서 ‘몽골의 자연과 문화자산을 연계한 힐택적 체험 문화관광 산업화 방안’ 발표.

▲**金仁圭**(정치69-73 성균관대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24일 성균관대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선거보도 의제 분석-14·15·16대 대통령선거에서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란 논문으로 언론학 박사학위 취득.

▲**高永才**(정치69-74 경향신문 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한·중 고위 언론 포럼’에서 기조연설.

▲**黃芝雨**(미학72-79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지난 8월 16~17일 서울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중극장에서 제9회 전통예술경연대회 개최.

▲**權奇成**(행정원77-79 세명대 교수·재단 이사)=지난 8월 ‘新국제통상론-거래·마찰·협상’(삼영사刊) 출간.

▲**安鍾惠**(작곡81-88 상명대 교수)=지난 9월 14일 서울 일원동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위기’, ‘소악곡’, ‘방해’, ‘선’ 등의 작품으로 작곡 발표회 개최.

▲**朴恩卿**(기약83-87 한영신학대 교수)=지난 9월 15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순수와 낭만 그리고 열정’을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박준영**(기약93-97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박사과정·바이올리니스트)=지난 9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조소연**(기약94-98 클랑트리오

멤버·피아니스트)=지난 9월 9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 개최.

▲**吳洙亨**(서양화02-06 일러스트레이터)=지난 8월 28일 미국 UCLA에서 Film, TV and Digital Media 석사과정(3년)을 이수하기 위해 출국. 본보 2006년 6월호부터 이번호까지 ‘콩트 릴레이’란에 삽화를 그려줌.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지난 8월 17일 충남 천안문화원 대강당에서 황장엽 前북한 노동당 비서를 초청, ‘북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포럼 개최.

I 명복을 빕니다 I

본회 金竣成고문



이수그룹 金竣成(본회 고문)명예회장이 지난 8월 2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1920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구고보를 거쳐 1942년 경성고등 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옛 조흥은행에 입사하며 은행과의 첫 인연을 맺었다.

그 후 한국은행 총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삼성전자 회장, 대우 회장, 이수화학 회장 등

을 지내는 등 금융계, 관계,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또 1982년 3월부터 1984년 2월까지 본회 9대 회장을 맡아 동창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1958년 ‘현대문학’에 단편 소설 ‘인간상실’을 발표해 등단했던 고인은 만년에 ‘육망의 방’(1998년), ‘비둘기의 역설’(2000년), ‘복제인간’(2005년) 등의 소설을 잇달아 출간해 화제가 됐으며 올 6월에는 미수연 겸 전집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디엔피코퍼레이션 김상철 회장, 페타시아메리카 김상우 회장, 이수그룹 金相範(경영78-82)회장 등 3남2녀가 있다.

유해는 충북 음성군 생곡면 ‘대지공원묘원’에 안치됐다.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온고지신(溫故知新)

－ 權彝赫 지음



모교 총장을 역임한 權彝赫(의학 41-47) 명예교수가 학교법인 성균관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후에 쓴 글을 모아 ‘又岡에세이 II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나의 小考, 역사인식,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감동적인 이벤트들, 축하·頌辭, 그리운 사람들, 집안일들 등 일곱 장으로 구성돼 있다.

모교와 성균관대 등에서 교수와 총장 그리고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보고 듣고 겪은 옛일을 맛깔스럽게 들려주고 있다. 또 시인 趙炳華동문 등 그리운 사람들에 대한 추억도 털어놓는다.

權彝赫은 이 책에서 “옛 것을 잊고도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서 새로운 문화가 개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원문화사刊·값19,000원)

■ 창의성과 무용교육

/ 종이접기 영재교육

－ 金在恩 지음



이 화여대 심리학과 金在恩(교육 50-54) 창의성교육연구소장 명예교수가 한국무용교육학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발표한 논문을 모은 단행본과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종이접기 영재지도서를 펴냈다.

‘창의성과 무용교육’은 무용교육학자나 무용가가 아닌 분야의 학자의 눈으로 쓴 논문이기 때문에, 심리·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무용과 무용교육에 대한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제공한다.

‘종이접기 영재교육’은 종이문화재단에서 기획, 편찬한 책으로 종이접기를 통한 영재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다루고 있다. (한학문화사刊·값15,000원/ 종이

나라刊·값20,000원)

■ 영원한 청년정신으로

－ 白樂院 지음



학교법인 인제학원 白樂院(의학 44-51 본회 고문)이사장의 자서전.

1983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고, 2002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白동문은 1926년 9월 27일 평안북도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백부(백인제)에게 거두어져 성장했으며, 그의 뜻에 따라 의사의 길을 걸었다.

1961년 백병원 원장에 취임해 백병원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성공시키고, 서울백병원을 시작으로 부산백병원, 일산백병원 등을 설립했다. 그리고 1981년 인제대 총장이 되어 의사의 길과 교육자의 길을 함께 걸었다.

白동문은 80세가 넘는 현재도 영원한 청년정신으로, ‘인술제세·인덕제세’로 세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정직·성실·근면’한 인간을 길러내 새 시대의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한길사刊·값18,000원)

■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

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 金允植 지음



모교 국어국문학과 金允植(국어교육 55-59) 명예교수가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글쓰기를 연구한 책.

당시 한국인 가운데 엘리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를 살펴보고 있다. 학병세대 글쓰기는 그들이 인생의 결정적 시기에 겪은 극단적인 전쟁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들은 민족적으로도 인류사의 처지에서 그 비극성을 고발해야 할 사명감을 가짐과 동시에 그 악몽에서 스스로 해방돼야 했다.

이 책에서는 학병세대의 글쓰기를 통해 한국근대문학의 단일성 인식을 반성, 검토했다. (서울대출판부刊·값15,000원)

■ 인격

－ 秦教勳 공저

모교 국민윤리교육과 秦教勳(철학 56-60) 명예교수 등 우리



나라에서 인격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1부에서는 인격수양을 중시해 온 동양철학의 전통사상에서 살펴본 인격의 의미들을 다뤘다. 제2부에서는 서양철학에서 인격론이 지성주의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중세철학으로부터 근대철학에서 살펴본 인격의 의미를 다뤘다. 제3부에서는 20세기의 중요한 철학적 흐름에서 다뤄진 인격론을 고찰했다. 제4부에서는 신학적 인간학에서 바라본 인격론을 다뤘다. (서울대출판부刊·값17,000원)

■ 한국인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 朴杉沃 대표저자



모교 사회복지학과 崔聖載(사회사업 66-70)교수, 의대 朴相哲(의학 67-73)교수, 지리학과 朴杉沃(지리 68-72)교수 등이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

이번 연구는 지역과 장수인의 두 차원을 조화하는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역’, ‘장수인과 지역’, ‘장수인’의 세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펼친다. 이를 통해 미래고령사회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해 본다.

이 책은 먼저 한국의 지역적 장수도 차이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 사회문화 및 복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장수인과 장수지역 사회에 관해 알아보고, 식생활과 의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장수인의 지역적 차이를 알아본다. 그리고 장수지역 산업체제와 지역발전의 관해 알아보며 끝을 맺는다. (서울대출판부刊·값20,000원)

■ 삶에 미치는

16가지 기술

－ 安炳燦 지음

한국일보 사이공 특과원, 시사저널 발행인 등을 지낸 한국 VJ협회 安炳燦(신대원 75졸 본보 논설위원)회장이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조사해 우리 미래를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년

공연

■ 金祐廷 첼로 독주회

－ 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첼리스트 金祐廷(기악 89-93 서울시향 부수석)동문(사진)이 9월 2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독일 쾰른 국립음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첼로 및 실내악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金동문이 이번 연주회에서 드뷔시, 라벨, 슈베르트의 소나타를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간 작업해온 결과물로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16인의 트렌드 리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16가지 유용한 기술을 소개했다.

이 책은 ‘열정의 에고이스트인 트렌드 리더의 자기애’, ‘트렌드 리더를 통해 미래를 읽는다’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트렌드 리더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면서 일반인들이 인생을 좀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여성적 감성을 지니고 남성의 세계를 점령하는 축구심판 홍은아, 관습을 깨는 예술경영의 일인자 (주)쌔미 전호균 대표, 영화와 박물관의 접목을 추구하는 추계예대 이보아 교수, 농민을 벤처기업인으로 양성하는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수석연구원 등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이 소개된다. (한국일보사刊·값10,000원)

■ 대한민국 이공계

공돌이를 버려라

－ 金松虎 지음



KAIST에서 석사학위, 미국 퍼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진씨엔텍 金松虎(화학공학 75-79)대표가 사회적인 이공계 위기를 개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金동문은 이공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돌이’란 속된 말처럼 기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

라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실현해야 하고, 자신과 타인의 전문분야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먼저 ‘이공계 위기’라는 말을 진단한다. 金동문은 여기서 이공계의 위기가 보단 이공인의 위기라고 분석하며 과거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나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지식사회에 대비한 이공인들의 전략, 이공계 교육 변화의 방향, 대한민국에 맞는 이공계 생존법칙, 이공계 비즈니스맨의 경쟁력 등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청림출판刊·값12,000원)

■ 직업세계와

나의 직업 찾기

－ 李永大 공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李永大(농업교육 75-79)연구위원이 진로 설계를 위한 청소년 직업 가이드

북을 펴냈다.

이 책은 직업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서서히 직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올바른 직업 선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문은 먼저 직업 세계에 대한 사회변화 및 진로 설계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그런 다음 건설, 전기·전자, 관리·경영, 금융, 영업, 교육, 예술, 법률, 사회복지, 운송, 미용 등의 업종으로 나뉘어 사람들의 적성과 흥미,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다. (교육사刊·값10,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너도나도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8-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통신공학48-56)
△김중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자행
△홍성대(수학57-63)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48-52)
◆2억원
△이종기(경영학69-73)
△장학순(토목공학46-50)
◆1억6천만원
△기계동문회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촌5부자
△SNUA웨딩플래닝센터
◆1억1천만원
△수학과동창회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정현(건축학57-61)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대현(기계공학46-50)
△박성훈(기계공학58-63)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졸)
△안성철(행정학58-63)
·손윤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응현(섬유공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운환(임학56-62)
△정중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옥(원예학83-87)
△보대원동창회
◆8천만원
△곽동현(법학61-65)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엄병윤(외교학60-64)
△화학과동창회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종기(생물교육51-55)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운(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입)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3-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이종현(경제학59-65)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상완(치의학64-70)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일산회 :
김진의(축산학59-65)
△한우리SJM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홍일(영어교육60-64)
△심형윤(토목공학52-56)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졸)
△이경택(섬유공학57-61)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치불회
◆1천2백만원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6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박준옥(약학55-59)
◆1천만원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권동은(I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중서(경제학58-63)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중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백사익(경성광전40-42)

△변상현(의학51-57)
△성백전(토목공학52-56)
△송명호(자원공학59-65)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심이택(화학공학57-63)
△안경상(행정학57졸)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병재(경대원69졸)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운(영어영문50졸)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종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형하(법학74-78)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자준(의학70-77)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정길(금속공학52-56)
△최준기(조선항공57-61)
△허영기(정치학44-48)
△함정호(행정학53-57)
△허성길(경제학60-64)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전북지부동창회
◆5백만원
△이현구(AMP 52기)
△법대37회 동기회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김영수(법학60-64)
△문규철(응용화학69-73)
△안재동(상학60-67)
△이성기(행대원63-65)
△하재규(농학53-57)
◆2백50만원
△정경모(행대원65-67)
◆2백만원
△문명국(기계공학73-75)
△이동수(건축학61-66)
△이종순(법학57-61)
△조원환(AMPP 6기)
△최창식(의학54-60)
△한규범(AMP 42기)



△허영호(전자공학71-75)
△황선대(법학66-70)
◆1백50만원
△김건호(수의학70-74)
△윤익석(축산학49-53)
◆1백30만원
△정주석(법학61-65)
◆1백20만원
△김영도(축산학68-75)
△나명훈(의학76-83)
△이준형(GLP 11기)
◆1백10만원
△명동근(경제학45-52)
△원우현(행정학61-65)
△유종일(신대원72-74)
△이명훈(농경제학69-73)
△이정자(국어국문50졸)
△허신행(농경제학62-66)
◆1백만원
△강규석(물리교육58-62)
△강영복(상학51-55)
△강종표(외교학76-83)
△강홍섭(화학공학59-63)
△고 건(정치학56-60)
△고병우(경제학52-56)
△구재철(의학78-84)
△권광중(법학61-65)
△권순철(전자공학83-85)
△권이혁(의학41-47)
△김교성(전기공학51-55)
△김국일(토목공학63-68)
△김규복(법학69-73)
△김기영(ACAD 49기)
△김노수(섬유공학45-52)
△김덕원(수의학50-54)
△김동찬(생물교육51-55)
△김방연(상학52-56)
△김연호(영어교육67-75)
△김영기(법학54-58)
△김영수(경제학58-62)
△김영재(법학57-62)
△김용찬(농화학57-61)
△김윤재(상학54-58)
△김익모(AIP 23기)

△김인규(정치학69-73)
△김인중(법학56-60)
△김일환(천문기상64-72)
△김재락(법학78-82)
△김재울(경성법전39졸)
△김정일(금속공학58-64)
△김정희(교대원73졸)
△김주용(전기공학58-63)
△김준말(영어교육55-59)
△김지호(화학공학55-59)
△김진익(법학55-60)
△김진우(약학54-58)
△김태현(제약학71-75)
△김태홍(화학교육71-79)
△김풍오(원자력공68-72)
△김형기(불어교육72-76)
△김호룡(법학48-52)
△김홍중(수학74-78)
△김화중(간호학63-67)
△나도선(약학67-71)
△문광순(공산학60-64)
△문일환(치의학65-71)
△문창극(정치학68-72)
△박국양(의학75-81)
△박성흠(불어불문63-67)
△박성숙(의학65-71)
△박성철(법학75-79)
△박순익(치의학66-72)
△박승균(조선항공63-67)
△박영원(지리학74졸)
△박영철(AMP 40기)
△박인원(의학76-83)
△박재형(의학66-72)
△박종철(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대원(정치학46-50)
△배기선(AMP 25기)
△배영한(상학49-58)
△변영삼(금속공학77-81)
△변종문(공업교육72-76)
△서계숙(기약56-60)
△석준형(물리학67-71)
△송종환(외교학64-68)
△송호룡(AIC 19기)

△신혜순(가정교육47-51)
△신희명(물리교육49-54)
△심장수(법학70-74)
△심한배(공업화학71-76)
△안치득(전자공학76-80)
△양해준(식품공학82-86)
△엄영섭(화학66-70)
△오복동(법학57-63)
△오세종(경제학61-65)
△오태환(법학53-57)
△우병규(정치학51-55)
△우세홍(생물교육60-65)
△우종호(중어중문60-64)
△우효섭(토목공학72-76)
△유피상(전기공학66-73)
△윤옥영(수학58-61)
△윤용혁(독어교육60-64)
△윤원진(HPM 6기)
△윤재석(화학교육71-75)
△윤홍식(물리교육56-60)
△이경렬(응용미술69-73)
△이경재(화학59-63)
△이광진(법학77-81)
△이근수(신대원69졸)
△이기봉(교육심리54-58)
△이기준(경제학55-59)
△이돈구(임학65-69)
△이두현(행대원74졸)
△이병목(의학54-60)
△이삼휘(농화학66-70)
△이상욱(경영학86-90)
△이성호(AIP 32기)
△이영상(상학59-64)
△이용우(공업교육64-68)
△이인혁(섬유공학54-58)
△이일훈(상학55-60)
△이재식(교육학75-79)
△이종대(독어독문64졸)
△이종복(응용미술62-66)
△이주한(역사교육53-57)
△이중환(의학51-57)
△이장건(전기공학49-54)
△이창호(기계공학55-61)
△이철주(상학59-65)
△이태형(상학59-63)
△이학숙(회화54-58)
△이현재(경제학48-53)
△이호인(응용화학66-70)
△이희숙(영어교육61-65)
△이희호(교육학46-50)
△임광환(농경제학55-59)
△임한조(물리학67-71)
△장권봉(응용미술56-62)
△장성원(영어교육57-61)
△장철식(섬유공학49-55)
△장혜실(성악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전정구(경제학51-56)
△전종갑(천문기상64-68)
△전팔근(영어교육47-52)
△정명희(의학65-71)
△정민섭(임학59-63)
△정병일(독어독문78졸)
△정병해(정치학49-53)
△정상조(행정학57-62)
△정소성(불어불문64-69)
△정영채(수리학56-60)
△정완호(생물교육58-63)
△정우식(항공공학80-84)
△정정길(행정학61-65)
△정흥숙(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무제(사대원65-67)
△조병철(섬유공학59-65)
△조영찬(중어중문74-78)

△조완규(생물학48-52)
△조장환(농학53-60)
△지상구(약학54-58)
△지철근(전기공학45-51)
△진영춘(토목공학67-74)
△진홍일(외교학62-66)
△차원갑(화학공학48-53)
△최동식(법학76-80)
△최명재(상학48입)
△최병순(화학교육69-74)
△최종덕(물리학52-56)
△최종운(의학77-83)
△최항순(조선공학65-70)
△함종한(농업교육63-70)
△홍성완(토목공학62-66)
△홍순겸(AIP 5기)
△황선용(사회교육57-61)
△황성재(법학72-76)
◆60만원
△부영욱(HPM 13기)
△여인철(조선공학75-79)
△이계홍(농공학56-62)
△이범구(물리학69-73)
△이정구(의학59-65)
△이찬구(상학56-61)
△이현구(화학공학58-62)
△최병주(생물교육56-60)
◆50만원
△강승호(수학교육67-71)
△강일우(섬유공학71-75)
△곽소진(신대원70졸)
△권혁창(지구과학69-76)
△김 신(경영학75-79)
△김건중(정치학66-70)
△김봉균(국어교육60-64)
△김세겸(농공학59-63)
△김용주(화학공학73-77)
△김용진(대학원80졸)
△김재현(경제학69-73)
△김정우(상학67-71)
△김진국(정치학78-85)
△김혜경(생물교육70-74)
△류재택(역사교육66-73)
△박남훈(외교학68-75)
△박양세(약학48-52)
△박일재(화학공학78-82)
△신동우(언어학71-75)
△신정택(AMP 48기)
△신철영(기계공학70-78)
△신한우(사회교육50-55)
△어 당(섬유공학68-72)
△오진환(법학75-79)
△유성삼(기계공학59-65)
△유종상(중어중문66-70)
△유창용(의학84-88)
△윤 백(기계공학78-82)
△윤석용(채광학50-54)
△이용팔(HPM 13기)
△이은주(간호학90-94)
△이인재(지질과학64-72)
△이찬영(상학55-59)
△이춘배(의학85-89)
△이홍석(농학52-56)
△임상규(금속공학68-72)
△장영일(치의학64-70)
△장희수(AMP 45기)
△정상명(행정학68-72)
△정성호(사법학81-85)
△조달호(AMP 7기)
△조성근(행대원61졸)
△조수호(회화47입)
△조영욱(가정교육58-62)
△조용철(종교학64-68)
△채경욱(경영학86-90)
△최동수(경영학65-70)

△최순철(치의학73-79)
△최은규(국어교육78-82)
△최현수(전기공학76졸)
△홍석주(경영학72-76)
△황건호(경영학70-74)
◆40만원
△강만식(생물학51-55)
△연대성(영어교육60-64)
△이병효(공업교육63-67)
◆30만원
△강창수(조선공학48-53)
△고재홍(자원공학75-82)
△곽영철(농공학59-65)
△구본무(농공학62-66)
△구인환(국어교육50-54)
△금명자(간호학76-80)
△김기락(의학68-76)
△김동완(행대원83-88)
△김상원(농경제학52-56)
△김상호(중어중문58-62)
△김세재(동물학85졸)
△김신원(응용화학64-72)
△김영대(SGS 12기)
△김유원(신대원72-74)
△김응진(대학원49졸)
△김정석(공예89-93)
△김철중(물리학70-74)
△김태수(영문학57-64)
△김학근(법학75-79)
△남창렬(화학교육65-69)
△류해주(상학65-69)
△문영도(경제학50-59)
△박강문(국어교육63-68)
△박경석(사학55-59)
△박경엽(전기공학75-79)
△박길상(사회학72-76)
△박동우(농공학70-74)
△박우규(토목공학70-75)
△박정수(농공학61-69)
△박현상(법학76-80)
△백운택(영어교육63졸)
△서경석(행정학67-71)
△서옥식(동양사학69-73)
△설재훈(토목공학74-78)
△소병수(사회학76-80)
△손창수(AMP 41기)
△신부길(농화학63-67)
△안소연(공예89-93)
△안재휴(광산학52-56)
△엄정식(신대원71졸)
△연기호(행대원67-70)
△유기수(물리학53-57)
△유기홍(법학58-64)
△유도봉(약학66-74)
△유인광(수리학81-85)
△유정열(기계공학65-69)
△윤영출(응용미술82-86)
△이건호(농경제학67-72)
△이경형(사회학66-70)
△이광찬(사회학58-62)
△이남우(국제경제82-86)
△이도전(임학55-60)
△이만성(상학64-68)
△이명호(iIP 3기)
△이상훈(법학78-85)
△이승복(기계공학61-65)
△이연자(기악59-63)
△이영기(법학71-75)
△이종완(독어교육72졸)
△이종휘(경영학66-70)
△이천진(수학교육66졸)
△이철근(조선항공58-64)
△이항철(경제학54-58)
△이희근(광산학55-70)
△임수진(ACAD 56기)

△임유철(국제경제84-88)
△임주환(지질과학62-67)
△장성종(축산학58-64)
△정연국(식물학64-68)
△정장환(AIC 11기)
△조성수(의학62-66)
△조효승(경제학84-88)
△전주훈(섬유공학64-68)
△최병덕(물리학55-61)
△최영희(화학61-69)
△최창호(사법학84-88)
△한동수(의학59-65)
△한동주(응용미술70-74)
△홍순길(외교학61-65)
△황덕연(토목공학60-64)
◆25만원
△안태준(기계공학83-91)
△이기준(iIP 2기)
◆23만원
△진재관(역사교육79-83)
◆20만원
△강경돈(영어교육70-77)
△강신홍(체육교육53-57)
△강효식(치의학57-61)
△고병철(국어교육61-65)
△고정애(제약학87-91)
△곽언구(AMP 34기)
△권기술(AMP 9기)
△권동환(ALP 2기)
△권중화(ACAD 62기)
△김광순(약학59-63)
△김남용(축산학53-57)
△김동만(축산학52-56)
△김병문(AMPFRI 17기)
△김봉규(영어교육52-56)
△김상구(영어교육60-64)
△김성로(토목공학52-56)
△김용규(경제학78-82)
△김용득(임학71-77)
△김우전(AMP 7기)
△김의식(상대전문46-49)
△김일용(HMP 6기)
△김종호(SGS 4기)
△김창경(역사교육61-65)
△김창근(법학51-55)
△김철진(법학50-58)
△김충섭(약학65졸)
△김통호(건축학70-74)
△노복길(원자핵공83-90)
△노승권(사법학84-88)
△노정학(수학교육73-77)
△류종탁(외교학56-61)
△문동민(화학공학57-61)
△문명호(영어영문59-64)
△박병룡(경제학80-84)
△박세운(농생물학76-82)
△박윤해(공법학84-88)
△박응복(수리학48-53)
△박종만(치의학69-75)
△박찬정(건축학73-77)
△박철근(법학55-59)
△배석필(행정학56-62)
△변창훈(건축학70-77)
△사공문(농공학72-79)
△서문원(농학74-79)
△선우종원(법학41졸)
△송창기(중어중문57-62)
△송의상(의학61-67)
△신경식(토목공학49-55)
△신석우(보대원65-67)
△신용일(교육심리53-57)
△신한풍(농학59-63)
△신현영(화학62-70)
△심재엽(상학63-71)
△안국정(사학63-70)

△안태호(경제학45-53)
△양세련(경제학92-97)
△양흥석(전기공학46-47)
△엄신흠(HPM 14기)
△오규원(행정학65-69)
△오근영(심리학59-65)
△유봉환(기계공학56-61)
△유석기(경제학57-61)
△유정복(행대원86-88)
△유태환(기계공학66-70)
△유형식(치의학59-65)
△육강화(사회학74-78)
△이강소(회화61-65)
△이경국(농학78-82)
△이기태(불어교육59-65)
△이동수(사회교육63-67)
△이동일(노어노문85-89)
△이민철(응용화학67-71)
△이석우(경제학63-67)
△이승훈(법학80-84)
△이영욱(법학52-56)
△이영운(수학교육58-62)
△이원욱(GLP 11기)
△이유희(가정학64-68)
△이재창(농학57-63)
△이재천(법학52-56)
△이준재(농화학57-63)
△이한동(행정학54-58)
△이형기(행대원70졸)
△이흥탁(영어교육59-64)
△임광순(GLP 7기)
△임병문(토목공학58-64)
△장기남(경제학61-68)
△전남수(농화학54-58)
△전도진(경대원70-72)
△전임효(가정관리81-85)
△정규능(화학공학58-64)
△정규수(물리학63-67)
△정동성(농공학57-63)
△정용권(조선항공58졸)
△정윤용(화학71입)
△정의조(수리학64-68)
△정주섭(영어교육52-57)
△조대승(조선공학81-85)
△조두현(법학49-58)
△진준현(고고미술77-83)
△최 일(대학원72졸)
△최광만(영어교육49-59)
△최길선(조선공학65-69)
△최병완(경제학57-61)
△최성근(법학78-82)
△최수강(건축학70-77)
△최흥락(경제학57-61)
△한정길(농생물학63-70)
△허영섭(지리교육74-78)
△허운욱(철학57-64)
△현소환(정치학57-61)
△현호연(농화학53-57)
△홍계화(상학66-70)
△홍석기(AIC 9기)
△홍종웅(사학65-72)
△황금연(생물교육50-54)
◆15만원
△김명훈(교육학49-58)
△김태영(ACAD 29기)
△박종훈(농공학78-82)
△송창현(사법학88-93)
△신동수(농공학55-61)
△이승윤(경영학93-97)
△전동렬(물리교육75-82)
△조 만(건축학56-60)
△조혜종(지리교육61-65)
△최돈형(물리교육68-72)
△홍기갑(행정학66-70)
◆12만원

△김정구(농화학84-88)
△윤기숙(기악82-86)
△윤대결(수의학58-62)
△정대수(신대원61-70)
△정수봉(임학60-65)
△조장호(언어학61-65)
△최근수(법학81-85)
△한홍진(대학원92-94)
◆11만원
△장익상(AMP 25기)
◎태국지부
◆1천달러
△김석건(농경제학50-55)
△이정우(독어교육64-71)
◎인도네시아지부
◆1천달러
△배상경(경제학56-61)
◆53명 1만달러
△김 훈(임학76-80)
△김두영(전기공학69-74)
△김상진(임산가공71-75)
△김석래(토목공학65-69)
△김승부(상학61-65)
△김영욱(전기공학69-73)
△김영하(경영학70-74)
△김익희(영어교육79-83)
△김정환(자원공학80-84)
△김춘성(국어교육81-85)
△김해근(토목공학73-77)
△김현식(요업공학77-81)
△민성식(자원공학71-75)
△민형식(경영학73-80)
△박성민(조선해양88-94)
△박영근(화학공학71-75)
△박종호(임학81-87)
△배도운(언어학79-83)
△배충복(경제학65-69)
△백승배(섬유공학79졸)
△백한미(수학교육83-87)
△서기운(자원공학73-80)
△소만호(경제학71-75)
△신돈철(산업미술83-89)
△안봉수(윤리교육81-85)
△안석희(서어서문85-89)
△염장진(경영학81-85)
△오승환(경영학73-77)
△윤창식(경영학72-76)
△이기훈(산업공학72-76)
△이범희(자원공학87-91)
△이상복(언어학68-75)
△이선현(화학공학74-78)
△이원제(임학64-69)
△임경진(경제학86-93)
△장기남(자원공학74-78)
△정 열(경제학70-74)
△정무웅(상학60-64)
△정용완(경제학88-92)
△조관호(화학70-78)
△최강호(금속공학76-80)
△최장원(임학69-77)
△최진한(섬유공학70-74)
△최형순(임학69-73)
△하석수(섬유공학68-72)
△하장빈(언어학82-87)
△한상규(영어교육72-76)
△한상재(농업교육72-76)
△한성국(국어국문81-89)
△한승도(국사학84-91)
△허광복(임산가공76-82)
△허근욱(상학68-72)
△황세호(수학교육80-84)

〈이상 2005년 10월 1일
부터 2007년 8월 24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10만원

△간다루미꼬(언어교육원)
△강기원(법학60-64)
△강남주(ACAD 56기)
△강명식(법학61-65)
△강병도(계산통계82-86)
△강성민(경영학94-00)
△강승준(사법학85-89)
△강영수(대학원61입)
△강인현(행정학56-62)
△강현석(금속공학64-68)
△강홍주(법학57-62)
△강흥석(법학58-64)
△고병천(기계공학75졸)
△고상열(경영학80-85)
△고영립(화학88-95)
△고정환(법학54-58)
△고창현(조선공학64-72)
△곽노희(기약81-85)
△곽준희(공예94-99)
△구본길(축산학63-67)
△구본영(경제학66-70)
△구현수(임학67-75)
△권경안(역사교육82-86)
△권기성(행대원77-79)
△권대욱(농공학6973)
△권오득(사회사업63-68)
△권용관(AMP 58기)
△권용신(사회복지86-94)
△권은민(사법학82-86)
△권태원(전기공학64-68)
△권태진(기계공학71-75)
△권희교(농공학68-75)
△금용일(경제학75-79)
△기준능(경영학80-90)
△김 유(약학60-64)
△김 희(토목공학63-70)
△김경립(법학60-64)
△김경중(치의학72-79)
△김경대(HPM 10기)
△김광운(대학원73-78)
△김광현(의학66-72)
△김광화(HPM 9기)
△김광희(작곡68-72)
△김국일(사법학86-91)
△김금립(약학62-66)
△김길남(의학75졸)
△김길영(ABP 19기)
△김남영(토목공학69-73)
△김남현(상학53-57)
△김대성(공법학81-85)
△김대중(경제학66-70)
△김대환(기약89-93)
△김덕창(중어중문59-63)
△김덕출(언어학81-85)
△김동선(대학원59졸)
△김동원(산업공학78-82)
△김동현(경제학85-89)
△김동환(농공학67-74)
△김명진(조경학78-84)
△김문수(농화학54-60)
△김문정(전기공학90-94)
△김민철(수의학00-02)
△김범준(종교학83-90)
△김병두(AMP 24기)
△김병윤(임학55-60)
△김병익(정치학57-61)
△김본원(수의학63-67)
△김봉민(교육심리53-57)
△김상갑(건축학81-85)
△김상두(화학교육94-98)
△김상철(법학66-70)
△김상태(ACAD 45기)
△김선구(경영학73-77)
△김선중(약학61-65)

△김성은(ACAD 30기)
△김성철(공업화학73-79)
△김성철(물리학97-04)
△김소례(교육학54-58)
△김수한(화학64-66)
△김순규(농공학62-69)
△김순신(영어교육51-00)
△김순자(화학62-66)
△김승국(심리학56-60)
△김승영(ACAD 43기)
△김승재(수학교육71-75)
△김억관(체육교육67-71)
△김연관(공법학85-89)
△김열규(토목공학70-74)
△김영권(경영학80-84)
△김영균(행정학52-56)
△김영렬(경영학79-85)
△김영률(기약76-80)
△김영민(영어영문85-89)
△김영수(사회교육87-91)
△김영일(지리학62-68)
△김영지(독어교육68-72)
△김영창(농공학59-65)
△김영태(응용미술59-66)
△김영호(잠사학65-69)
△김완기(상대전문46-50)
△김용구(기계설계76-82)
△김용구(농학57-61)
△김용근(화학01-05)
△김용기(경제학56-62)
△김용준(치의학53-58)
△김우탁(화학교육57-61)
△김육환(자연과학97-03)
△김원일(공업교육63-67)
△김원주(행정학53-57)
△김윤규(기계공학62-69)
△김인기(AIC 2기)
△김인섭(농공학64-71)
△김일륜(국악79-83)
△김재동(조선공학70-74)
△김재영(불어불문82-86)
△김재우(농공학69-73)
△김재창(전자공학64-69)
△김재호(신문학85-91)
△김적승(사대원69졸)
△김정기(농학56-61)
△김정기(해양학83-87)
△김정묵(농생물학59-65)
△김정수(치의학54-58)
△김정숙(화학57-61)
△김정호(치의학80-86)
△김종규(화학교육62-66)
△김종식(ACAD 60기)
△김종탁(산업공학74-80)
△김종표(사법학87-91)
△김종환(의학50-56)
△김중선(약학57-61)
△김지선(화학교육68-72)
△김지호(항공우주92-96)
△김진수(농경제학70-77)
△김진수(농공학70-75)
△김찬우(수리과학01-06)
△김창윤(수의학53-57)
△김채종(치의학68-74)
△김철기(경제학72-76)
△김철주(경영학75-79)
△김철중(농공학64-71)
△김춘자(고고인류64-68)
△김태영(치의학97-01)
△김풍진(농공학71-78)
△김학수(행정학65-69)
△김학준(정치학61-65)
△김형구(철학73-77)
△김형기(토목공학66-74)
△김형선(법학57-62)

△김형원(대학원83졸)
△김호겸(공업교육71-75)
△김호연(ACAD 11기)
△김홍헌(법학67-71)
△김화정(수학89-94)
△나귀수(수학교육87-91)
△나양명(사법학86-94)
△남광현(농공학62-66)
△남기민(사회사업69-73)
△남기종(수학교육54졸)
△남혜경(간호학79-83)
△노석준(토목공학76-80)
△노정석(경제학87-93)
△류기락(농업교육81-88)
△류돈희(AMPFRI 3기)
△류춘호(경제학79-83)
△문동성(독어독문69-73)
△문동신(ACAD 55기)
△문성철(상학54-58)
△문영극(행정학65-69)
△문우택(기계공학57-61)
△문은국(물리학98-05)
△문철한(상학56-60)
△민경식(전기공학50-55)
△민동근(철학46-50)
△민병운(농화학56입)
△민병일(물리학74-78)
△민병찬(보대원75-77)
△민태혁(축산학62-66)
△박경서(독어교육66-70)
△박경석(농화학52-56)
△박경희(응용미술75-79)
△박광표(자원공학47-54)
△박만순(무역학77-81)
△박민철(식물학65-72)
△박병명(법학74-78)
△박병주(의학74-80)
△박병규(조선공학62-71)
△박부찬(행정학56-60)
△박상균(공법학81-85)
△박상필(불어교육76-81)
△박상홍(농경제학55-59)
△박성민(화학교육70-74)
△박성수(농공학73-80)
△박성희(가정관리73-77)
△박세나(기약90-94)
△박영대(동양화87-92)
△박영일(경제학61-65)
△박육련(치의학53-57)
△박용섭(농공학73-80)
△박용진(금속공학51-55)
△박우병(광산학52-56)
△박육근(경영학70-74)
△박원진(행정학51-55)
△박유성(불어교육90-95)
△박윤수(정치학47-51)
△박의용(국어교육91-97)
△박인식(교육학48-53)
△박재규(토목공학56-61)
△박재범(섬유고분84-92)
△박정국(의학52-56)
△박종열(대학원71졸)
△박종혁(컴퓨터공96-01)
△박주현(외교학88-93)
△박준호(경영학96-00)
△박중대(상학49-57)
△박진태(AMPFRI 2기)
△박진환(농경제학48-52)
△박창서(농경제학61-65)
△박창진(보대원70-72)
△박춘배(환대원77-79)
△박현렬(화학공학67-71)
△박형규(ABP 20기)
△박형준(국어교육64졸)
△박효순(기약64-68)

△박훈기(경영학81-86)
△방기범(기계설계84-88)
△방덕환(의학53-59)
△방성호(의학66-72)
△배기룡(SGS 4기)
△배용찬(지질과학61-65)
△배정길(농공학61-67)
△배종섭(경제학58-63)
△배호순(교육학67-74)
△백선욱(기계공학62-66)
△백선호(치의학73-79)
△백승우(작곡82-86)
△백종섭(사회교육77-81)
△변모은(국어교육90-94)
△변유식(농학58-64)
△사공일(상학58-64)
△서광석(정치학51-55)
△서덕모(법학73-77)
△서봉석(AMPFRI 1기)
△서상수(법학80-84)
△서승원(상학53-57)
△서완수(농경제학58-64)
△서재영(회화71-75)
△서택동(농공학73-80)
△석관수(지질과학84-88)
△석기병(화학85-91)
△선종승(경영학71-75)
△설원태(영어교육77-83)
△성낙현(응용화학71-75)
△성명훈(의학76-82)
△소병철(법학78-82)
△손낙철(화학교육49-53)
△손두식(임학57-63)
△손수일(국어교육48-55)
△손신명(무역학78-82)
△송기형(경영학76-80)
△송동수(체육교육67-71)
△송몽채(영어교육67-71)
△송민호(국민윤리01-04)
△송범호(수학교육81-85)
△송세광(APC 3기)
△송영호(치의학57-61)
△송완근(섬유공학53-58)
△송지현(불어불문83-87)
△송창진(약학54-58)
△신태철(기계공학68-72)
△신통소(임학53-57)
△신태명자(생물교육56-60)
△신태순우(행대원74졸)
△신태윤하(공업교육63-68)
△신태종계(조선공학73-77)
△신태종균(사법학87-91)
△신태현식(건축학50-54)
△심상훈(경영학79-81)
△심종덕(AIP 15기)
△심형보(섬유공학54-58)
△안동만(건축학69-73)
△안동만(항공공학66-72)
△안명숙(응용미술67-71)
△안미정(제약학87-91)
△안병준(화학교육78졸)
△안수현(경영학77-81)
△안영숙(가정교육52-56)
△안응선(법학56-62)
△안종윤(법학51-55)
△안주희(사회교육73-77)
△안진호(지질과학91-95)
△안치일(농공학73-80)
△안필준(ACAD 8기)
△양덕배(교육학61-66)
△양동규(치의학53-57)
△양승엽(농학52-56)
△양태운(iIP 4기)
△어덕준(기계설계79-83)
△여미숙(사법학84-88)

△여현태(보대원65-67)
△염병배(경제학75-79)
△오강돈(정치학83-87)
△오건주(생물교육76-80)
△오광협(ACAD 37기)
△오봉국(축산학48-52)
△오선차량(수학62-66)
△오성종(역사교육58-62)
△오성진(산업미술83-87)
△오수국(영어영문72-74)
△오인식(재료공학72-79)
△오종철(농공학77-84)
△오준석(농공학72-76)
△오충용(농경제학60-65)
△오흥수(농경제학55-60)
△우관희(농공학63-67)
△우무일(임학64-68)
△우성만(법학76-80)
△우성봉(농공학79-83)
△우용렬(약학57-61)
△원혜영(역사교육71-96)
△원후식(농생물학56-62)
△유각목(AIP 5기)
△유길준(교육행정55-59)
△유동립(공업교육68-72)
△유병서(농경제학59-65)
△유부열(농업교육66-74)
△유석형(농공학58-64)
△유선호(법학72-76)
△유시우(농공학61-65)
△유신혜(산업미술83-87)
△유영미(의학84-88)
△유화연(수학교육59-63)
△윤광선(의학68-75)
△윤미용(국악65-69)
△윤병은(경영학72-76)
△윤상철(임산가공80-84)
△윤석현(정치학46-49)
△윤성민(AMP 13기)
△윤여홍(농공학76-83)
△윤영원(수의학63-70)
△윤영희(언어학68-72)
△윤운섭(수학교육61-68)
△윤인화(농화학55-59)
△윤재섭(원예학83-90)
△이갑현(상학61-68)
△이강진(의학74-80)
△이경덕(수학66-70)
△이경선(전기공학84-88)
△이경원(기계공학60-66)
△이계욱(무역학62-67)
△이계윤(교육행정53-57)
△이관범(ACAD 20기)
△이관호(농학62-68)
△이관희(의학75-82)
△이광수(약학63-68)
△이규본(수의학61-65)
△이규식(체육교육58-62)
△이규재(농화학50-61)
△이근형(신문학78-84)
△이기사(의학73-79)
△이기석(법학76-80)
△이기화(무역학79-83)
△이대원(상학59-65)
△이동근(국어국문76-80)
△이동남(국악66-70)
△이동욱(심리학92-97)
△이동호(교육학59-63)
△이병상(사회학61-65)
△이병성(제약학74-78)
△이병주(영어교육54-58)
△이병천(임학55-59)
△이복환(체육교육70-77)
△이봉호(치의학86-90)
△이부영(의학52-59)

△이삼선(치의학86-90)
△이상국(토목공학80-84)
△이상기(서양사학81-87)
△이상복(AMP 41기)
△이상욱(교육학51-56)
△이상원(법학80-84)
△이상인(농공학63-67)
△이상인(수의학82-86)
△이상호(농공학67-74)
△이상훈(조경학88-93)
△이생근(수의학78-82)
△이석형(기계공학70-74)
△이선동(보대원86-88)
△이선영(생명과학00-05)
△이성균(역사교육54-58)
△이성윤(국사학94-01)
△이성철(농공학71-78)
△이성해(외교학61-65)
△이세락(AMP 45기)
△이세한(AIC 11기)
△이수호(AMP 55기)
△이순병(토목공학68-72)
△이신구(역사교육59-63)
△이영만(AMP 54기)
△이영만(HPM 14기)
△이영배(금속공학52-56)
△이영우(수학73-80)
△이영태(행대원72-74)
△이영호(축산학65-69)
△이용희(경제학57-61)
△이우명(화학63-70)
△이우영(수의학59-63)
△이운재(경대원71-72)
△이원순(역사교육45-49)
△이원진(농경제학88-92)
△이윤식(공법학83-87)
△이윤표(AMP 36기)
△이은신(사법학83-87)
△이은호(국어교육97-00)
△이의재(금속공학66-70)
△이익진(SGS 2기)
△이장무(기계공학63-67)
△이장하(금속공학87-91)
△이재기(농공학53-57)
△이재명(치의학63-69)
△이재복(ACAD 21기)
△이재선(재료공학69-73)
△이재숙(국악59-63)
△이재웅(법학51-55)
△이재원(법학76-80)
△이재윤(치의학76-82)
△이재철(수의학52-56)
△임병구(농공학60-66)
△임병기(농학50-54)
△임성수(HPM 14기)
△임성수(치의학60-66)
△임재원(국악76-80)
△임현태(원자핵공78-82)
△장경우(수학78-82)
△장만화(경제학56-61)
△장상용(경영학72-79)
△장은주(제약학90-94)
△장이슬(작곡96-02)
△조영근(전기공학97-01)
△차균오(전기공학76-83)
△허 길(경제학52-56)
△황성동(제약학78-85)

〈이상 2007년 7월 24일
부터 8월 24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은
지면관계로 다음호에 게재
합니다.〉